



발행인       나기주  
발행처       (재)지역문화진흥원  
발행일       2018년 12월 21일  
ISBN         979-11-965745-2-9

기획         지역문화진흥원 & 쥬스컴퍼니  
편집위원     노명우 신동호 안영노 안태호 이한호  
코디네이터   안태호 황태희  
취재         김정흠 손천수 정영은 천소현  
디자인       이금주 이미진  
표지일러스트 손천수  
제작         (주)여행신문 | **Travie**



지역문화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본 책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실린 글은 지역문화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5층 전화 02-2623-3100





2009-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10년 사례집

# 나, 함께 만들 산다

## Content

---

인사말 '함께하는 삶'이 길이 되기를	002
들어가는 글 다섯 개 마을로 떠난 공동체 여행	004

### Community Story

경기 안산 감골주민회	006
경기 부천 송내동마을사랑방   부천문화재단	026
대전 중구 극단 아깁없이주는나무	044
경북 안동 그림애문화마을협의회	064
부산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영도문화원	084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소개	104
마치는 글 공동체적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생활의 공동체	120

# ‘함께하는 삶’이 길이 되기를

---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혼자 사는 것’에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홀로족’, ‘혼밥’, ‘혼술’ 등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많은 표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혼자서 하는 활동’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남’과 함께하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하며, 때론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나의 행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개인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과 함께 산다는 것’도 ‘개인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 관련 연구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을 보면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이기적’이지만, 또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 ‘타인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진화과정을 통해 이 양쪽의 특성을 모두 내재화했다는 것입니다. 요는 인간이 행복하려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존중받을 수 있는 개인주의와 타인과 함께 협력하는 사회적 관계의 풍요로움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의 조화, 이것이 행복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10년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마을과 마을살이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된 문화활동이 주민 개인에게, 그리고 서로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 사례집은 지난 10년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과 마을 주민의 노력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교육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파커 J 파머의 표현과 같이 함께하는 삶과 그 마음은 ‘부서져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5개 마을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 어떻게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길을 열어 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우리 이웃들이 그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어느 겨울날 오후  
함께하는 지역문화가 꽃피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문화진흥원장 나 기 주

공

다섯 개 마을로 떠난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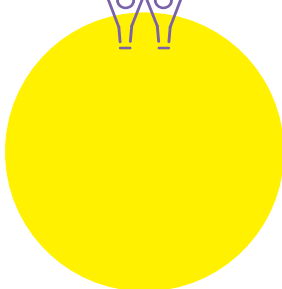
동



여



행



공감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감각은 실종되고 안정이라는 말은 멸종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물어뜯는 흉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을 초기값으로 출발해야 하는 지금, 공동체를 묻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심리적 평화와 위안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역량, 자기회복력, 치유력, 자기 돌봄의 힘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혼밥과 혼술이 라이프스타일로 상찬되는 일인분 세상을 살아야 하기에 누군가는 자기만의 성채에서 충일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오게 마련입니다. 타인과의 교류와 안정, 물리적/심리적 안전과 삶에서 누리는 기쁨들은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일상을 어떻게 영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오롯한 영역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교류와 연합이 가능한, ‘함께 사는 나들’의 세상을 꿈꿔봅니다.

우리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10년을 회고하며 몇 개의 마을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은 낯선 것을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형식입니다. 다른 세계, 다른 질서에 잠시 몸을 담그는 과정이죠. 사실, 며칠 거주한다고 해서 그곳 사람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야겠네요. 우리의 여행은 그래서 다만 몇 시간 둘러보고 이야기를 듣고 마는 것에 비해, 단지 조금 더 성실한 관찰의 시간을 가진 것뿐이라고 불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여행에서도 그것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주마간산 격으로 둘러본 여행지는 가이드의 설명을 아무리 충실하게 들어도 몇 가지 단편적인 이미지만으로 남기 마련이죠. 그러나 단 며칠이라도 천천히 그곳의 거리와 사람들의 활력을 응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만이라도 그곳에 머물며 주민들과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마을의 낮과 밤을, 길 위의 분주함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참여할 수 있던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5개의 공동체 마을을 거닐면서, 활기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마을의 꿈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기록을 마주하는 여러분도 같은 즐거움과 기쁨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말랑말랑 감골주민회

# 오늘도 마을에서 살아갑니다

마을이 학교이고, 마을이 일터이며,  
마을이 놀이터이고 싶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감골주민회를 만나다.

글·사진 정영은

〈응답하라 1998〉이 유행하면서 그 시절의 따스함을 그리워한 적이 있다. 해 질 녘 밥 먹으라고 외치는 엄마의 목소리, 옆집에서 저녁을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아이들,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어른들. 이런 하나하나의 장면에서 묻어나는 따스함에 팬스레 마음이 말랑말랑해졌다. 지금 옆집 사람이 갑자기 인사를 한다면 마냥 좋을까 싶기도 하지만, 드라마를 보는 동안은 “맞아 사람 사는 건 저런 거지” 싶었다. 지금은 사라져 버린 무언가, 설핏설핏 기억나는 내 어린 시절의 따스함 때문이리라. 드라마가 종영한 지 몇 해가 지난 지금. 텔레비전에만 있을 거 같던 말랑말랑함을 경기도 안산 감골주민회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열정 99C의 대표적 포토존인 노란 마을 지도

마을 어른들이 색깔 없이 스케치만 해두었던 것에 아이들의 손이 닿아 색이 더해졌다



...  
 여행자가 정영은은 감골주민회와의 시간에서 오랜만에 옆집의  
 정겨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행복감을 느끼며, 푸근한 주민들  
 의 일상을 기록했다.

# 그냥 마을에 던져진 특별한 질문들

안녕하세요. 감골주민회입니다.

안산 사동을 처음 마주했을 땐 다른 마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길게 뻗은 도로, 일률적인 다가구 주택들, 그나마 계절을 알려주는 가로수... 그러나 누가 말했든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마을에 관심이 더해지니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 축제의 즐거움이 담긴 놀이터, 아이들에게 숲속 매력을 알려주는 뒷산 달봉재와 휴암산, 주민들의 안부 인사로 가득 찬 골목길. 마을 구석구석 주민들의 이야기가 덧대어져 여느 마을과는 다른 따스함을 풍기는 이곳에 감골주민회가 있었다.

감골주민회에서 만난 아이들은 서로 누나, 동생이 되고, 그런 아이들의 부모들은 모든 아이의 부모가 됐다. 놀이터 축제 행사장에서 만난 옆집 할아버지는 어느새 모두의 할아버지가 됐고, 목공 수업을 같이 받은 청년들은 자연스레 친구가 됐다. 감골주민회는 그런 곳이다. 한 아이가 혹은 한 어른이 마을에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이 되며 성장하는 곳. 타인의 삶에 도통 눈길을 주지 않는 요즘,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은 '어느 날 아침 똑딱'이 아니었다.



## Community Story

안산 감골주민회

08p



## Community Place

주민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마을숲 카페

14p

보글보글 1°C, 청소년 열정 공간 99°C

17p

목공으로 마을과 통하다. 통나무 공방

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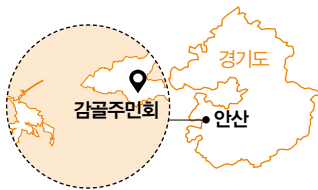
## Community Review

마을사업 개요

23p

칼럼

24p



## 안산 감골주민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20-2 2층 복합문화공간 마을숲 4호선 상록수역에서 택시로 10분 거리. 석호로 감골도서관 버스 정류장 뒤 2층에 감골주민회의 아지트 마을숲 카페가 있다. 감골주민회의 흘러간 기억이 복도 가득 나열되어 있어, 그간의 즐거움을 찾아 몇 번 웃다 보면 마음이 말랑해지는 감골주민회를 만날 수 있다.

📧 [ansangamgol.modoo.at](mailto:ansangamgol.modoo.at) 📖 [blog.naver.com/momnhome](http://blog.naver.com/momnhome)

🌐 [www.facebook.com/igamgol](https://www.facebook.com/igamgol)

1 간결하면서도 귀여운 감골주민회 명함  
2 안산 사동을 안아주는 마을 뒷산 달봉재에 가을색이 물들었다





1 시작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는 마음이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과 차를 마시고 서로의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것이 그저 재미있었다. 그런데 그 재미만 것이 2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감골주민회의 시작이 된 샘골 사랑 독서 모임이다. 처음부터 마을에까지 관심이 닿지는 않았다. 그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니 자연스럽게 관심은 마을로 향하게 됐다.

마을을 들여다보면서 옆집 엄마, 동네 토박이 어르신, 우리 집 아이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감골주민회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마을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저질렀다. 인터넷 검색창에 '마을 만들기'를 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독서 모임에서 마음이 맞았던 주민들끼리 의기투합했다.

주민회가 처음부터 거창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밑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학생들이 서로 공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역 어른들이 남는 시간에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 이런 활동들이 서로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2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나니 활동에는 점점 더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가속에 날개를 달아준 것 중 하나가 바로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 사업이다. 안산문화재단으로부터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이하 생문공) 사업을 제안 받았을 때만 해도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예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도 무작정 달려들었던 건, 사업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서투른 준비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사업 지원 마을로 선정됐고, 마을은 조금 더 바쁘게 돌아갔다. 마을 기록을 시작하면서 소식을 발간했고, 문화예술 강좌를 진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상 사업들의 기반이 당시 생문공을 통해서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마을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놀이터에서 진행하던 축제를 공원에서 진행하게 됐고, 인문학 강좌에 마을 학교 프로그램까지. 그렇게 다른 보통의 마을에서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감골주민회를 통해서 실현됐다.

1 청소년 목공 수업 중인 통나무 공방  
2 마을 주민들의 한 땀 한 땀 비느칠로 완성한 하나뿐인 지도 3 20년 만에 튀어나온 그림 솜씨 덕에 완성된 마을 골목길 엽서

24시간이 부족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감골주민회도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이지는 않았다. 마을축제를 진행하는데 현수막 제작비용이 없어 난감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PPT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하고, 그야말로 난감의 연속이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기운이 빠져 나자빠질 거 같았지만. 역시나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엄마들 자신도 몰랐던 재주가 하나씩 튀어나왔다.



3

회사에서만 쓰일 거 같던 PPT 작성 노하우, 취미로 시작한 켈트, 이십 년은 잊고 살았던 그림 실력. 이렇게 본인들은 재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튀어나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마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름이 되어 주었다. 집집마다 숨겨놓은 재주 상자가 뿔 하고 터져 마을 곳곳에 흩날리게 된 것이다. 재주 상자가 한번 터지고 나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도 재미가 붙었다. 목공을 위해 드립을 처음으로 만져보고, 글쓰기를 공부하고, 우쿨렐레 코드를 익히고... 배우는 연속이지만 이상하게 힘들지가 않다. 아이들 혹은 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재주에 새로운 것들이 자꾸 더해지자, 배우기만 하던 엄마들은 이제 주민 강사가 되어 재주를 나누게 됐다. **마을이 놀이터가 되고, 마을이 일터가 되고, 마을이 학교가 되어 모두의 삶을 마을이라는 테두리로 안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감골주민회가 매년 좋은 순간만 마주한 것은 아니다. 마을숲 카페에 이어 통나무 공방, 청소년 열정 공간 99℃를 운영하면서, 공간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더 빌리게 되고, 공간 유지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아웅다웅하는 날들도 있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다음 날도 서로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니 좋으나 싫으나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생각이 같으니, 의견의 끝이 다를 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민회와 마을은 같이 한 뼘 성장해 왔다.

거점공간을 여행하듯 머물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재미가 붙어 외박을 강행했다. 숙박을 어떻게 하나 고민할 겨를도 없이 누군가는 방을 내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내주었다. 낮선 공간, 낯선 사람과의 시간이 어색할 만도 한데, 마을 안에서 만나는 모두를 품어주는 감골주민회의 매력 때문인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다. 그렇게 새벽까지 이어진 자리에서도 마을에서 살아감을 이야기했다. 하루하루가 마을과 함께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이다.

1 업서 속 골목길을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2 청소년의 편안함을 책임지는 청소년 열정 공간 99℃



쉬지 않고 마을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모두에게 세월이 지나갔다. 활동하는 주민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독서 모임의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됐다. 그 시간 동안 마을 역시 성장했다. 아이들에 맞춰졌던 프로그램은 시니어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고, 주민 강사 양성을 통해서 마을 안에서 배운 것들이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감골주민회는 여전히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옆집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같이 보고, 직장에서 퇴사한 주민의 내일을 걱정해주며, 10년 후에도 모두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 주민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우리 아이가 사복을 입고 학교에 갔잖아.” “우리 아이는 월요일마다 지각해요.”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오가는 이곳은 감골주민회의 애정 공간 마을숲 카페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카페와 다르지 않다. 커피와 차를 판매하고, 깔끔한 테이블과 의자,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의외의 공간과 물건들이 있다. 공동주방과 연주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빔프로젝터까지. 감골주민회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한 공간이 여기다.

감골주민회는 학교에서 마을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거점 공간이 필요하게 됐다. 한창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한양대 앞 커피숍에서 커피가 잘 팔리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그래 저거구나. 커피를 팔면 그래도 임대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만 사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되겠구나 싶었다. 그렇게 마을숲 카페를 만들자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의지만 있다고 될리가 없으니 엄마들이 손을 더했다. 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쌓여가는 공간. 그렇게 마을숲 카페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마을숲 카페는 분주하다. 10시 문을 열자마자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한창이다. 감골주민회가 궁금한 다른 지역주민들의 방문이 있기 때문이다. 익숙하다는 듯 손님을 맞이하고 마을 소개가 시작됐다. 감골주민회가 시작된 계기, 공간 소개, 미래의 모습이 짧게나마 이야기되었고, 궁금한 것이 많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 질문을 이어갔다. 그 사이에 커피 15잔이 팔리는 건 보너스다.

마을숲 카페는 그렇게 한바탕 강연장의 모습을 하더니, 다른 지역 주민들이 빠져나가자 이번에는 공동 부엌이 열렸다. 저녁에 도시락 60인분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커피와 음료를 판매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이 일정치 않으므로, 이렇게 다과와 식사를 판매해 마을숲 카페의 운영비에 보태고 있다. 엄마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내 명절날 주방처럼 북적이며 활기가 넘친다. 쌓여있는 식자재를 씻고, 다듬고, 자르더니, 애호박전과 동태전을 부치고, 해초 무침을 만들고 모두가 분주하다.



1

1 아기자기 마을숲 카페 간판 2 누구나 편히 다녀갈 수 있도록 조성된 마을숲 카페



2

## People

### “감골주민회와 마을의 합작품이 주민들이 행복이죠”

안산 감골주민회 이영임 대표



마을은 주민들의 힘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말이죠. 그래야 주민들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거든요. 사실 토요수업도 주말에 가정에서 체험학습에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한 가족이 주말마다 어디로 이동하고 체험하는 데 돈이 꽤 들거든요. 근데 감골주민회에서는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여기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면 그 자체로도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공동 부엌도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식자재는 대량으로 구매하면 저렴하니까, 다 같이 만들어서 나눠서 먹는 거죠. 또 역량이 있는 주민들은 주민 강사로도 활동하는 거고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마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감골주민회는 계속 즐거운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3~4시간 힘을 바짝 모으면 당분간 커피가 팔리지 않아도 마을 활동에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에 힘이 바짝 난다. 지글지글 소리와 고소한 냄새에 자원봉사 엄마를 따라온 아이는 주방을 기웃기웃하더니 동태전 얻어먹고 신이 났다.

1 감골주민회가 궁금한 다른 지역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2 책장 가득 감골주민회의 이야기가 채워져있다 3 슬쩍 붙여놓은 메모지에도 99℃의 이야기가 있다 4 청소년 열정 공간 99℃에서 청소년들은 함께 살아감을 배운다

저녁이 되자 동네 아이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책을 꺼내 든다. '나빠스터디'의 선생님과 학생이다. 나빠스터디는 인근의 고등학생들이 초·중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누나 오빠스터디'의 줄임말이다.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전전긍긍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사교육비를 줄여보고자 운영하게 된 프로그램이다. 고등학생 아이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좋고, 부모님들은 딱히 학원을 보내지 않고 간식비만 들이면 1:1 과외처럼 공부를 봐주니 서로에게 이득인 것이다. 고등학생 선생님의 영어 강습이 이어졌다. 초등학생 아이는 조금은 지루한지 몸을 비틀고, 재미없는 농담으로 선생님께 쉬어가자고 조른다. 그렇다고 넘어갈 선생님이 아니다. 똑바로 앉으라고 말하는 것이 영락없이 제자에게 훈계하는 선생님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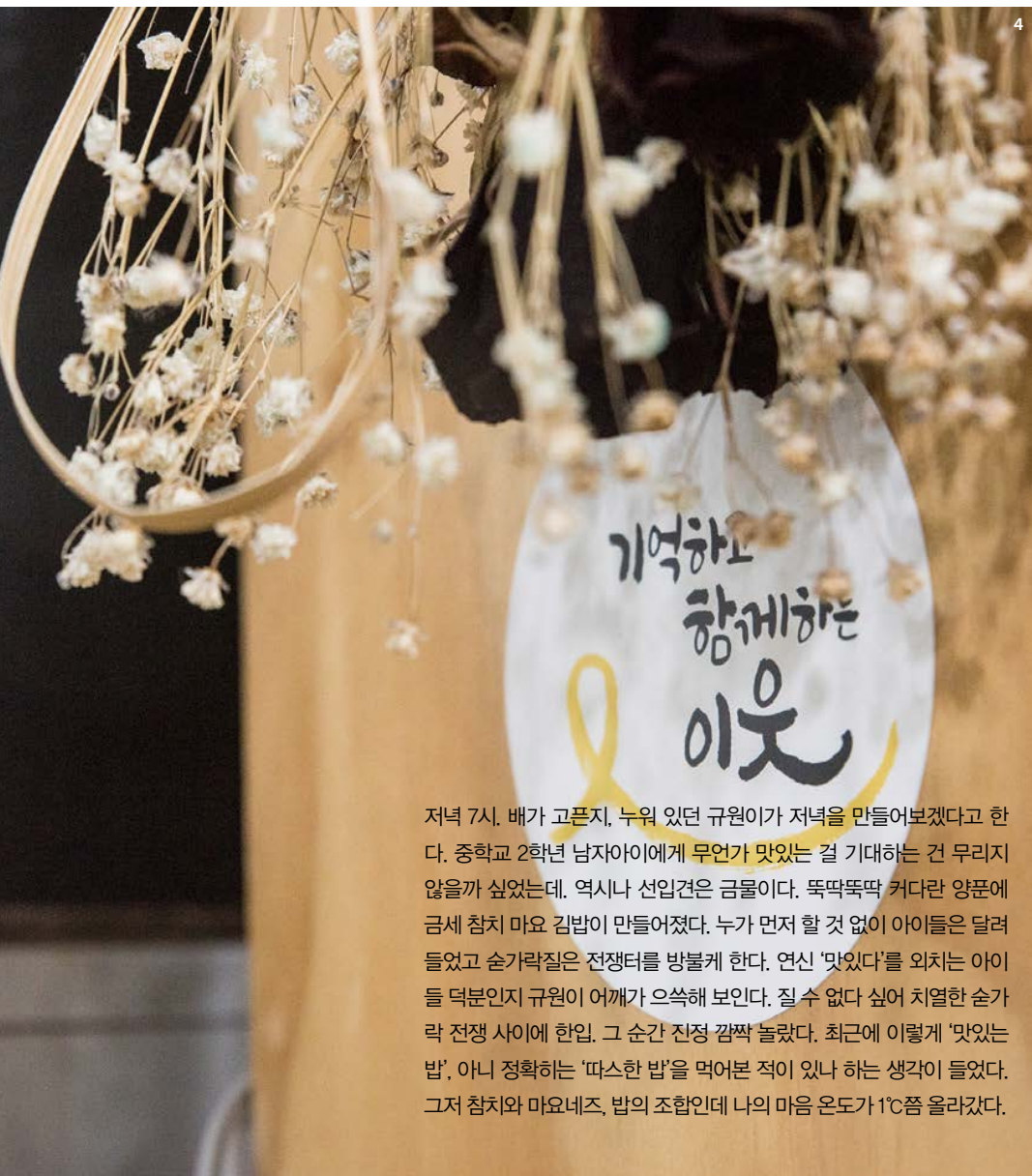
이렇게 마을숲 카페는 하루에 몇 번씩 다른 모습으로 주민들을 맞이한다. 커피와 수다 한 잔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커피숍으로, 공부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습공간으로, 또 강연이 있을 때는 강연장의 모습으로, 복합문화공간 마을숲 카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이 되는 것이다. 매번 다른 에너지로 가득한 이 공간에 앞으로 쌓여갈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마냥 궁금한 오늘이다.



##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다

3

4



저녁 7시. 배가 고픈지, 누워 있던 규원이가 저녁을 만들어보겠다고 한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에게 무언가 맛있는 걸 기대하는 건 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선입견은 금물이다. 똑딱똑딱 커다란 양푼에 금세 참치 마요 김밥이 만들어졌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아이들은 달려 들었고 손가락질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연신 '맛있다'를 외치는 아이들 덕분에 규원이 어깨가 으쓱해 보인다. 질 수 없다 싶어 치열한 손가락 전쟁 사이에 한입. 그 순간 진정 감쪽 놀랐다. 최근에 이렇게 '맛있는 밥', 아니 정확히는 '따스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참치와 마요네즈, 밥의 조합인데 나의 마음 온도가 1℃쯤 올라갔다.

## “아이들에게 그저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청소년 열정 공간 99℃ 김부일 선생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받아서 어른이 되기에 모자란 1℃를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강의를 듣게 하는 건 답이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 '99℃ 인생극장'이라고, 10대를 요란하게 보냈지만, 지금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청년들을 초대해,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딱딱한 강의보다는 편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좋은 자극을 받으면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앞으로도 무언가를 억지로 해볼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열정 공간 99℃는 그렇게 거창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그저 아이들이 잠깐 쉬어가기 좋은 공간,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공간이면 된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열심히 유지해보려고요. 언제든지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말이죠.



1 설거지를 스스로 하겠다는 아이들의 의지! 2 청소년 열정 공간 99℃에는 아이들의 추억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자신이 먹은 120  
자신이 깨끗이 설거지 하기  
Good!!



참치 마요 김밥으로 반해 버린 이 공간은 감골주민회에서 운영하는 열정 공간 99℃라는 청소년 공간이다. 2015년 마을숲 카페가 이전하면서 그 공간은 오롯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 공간의 대표적 포토존인 노란 마을 지도도 그때 탄생했다. 그렇게 3개월이 걸린 아이들의 작업은 열정 공간 99℃의 보물 1호가 되었다. 그리고 99℃라는 공간 이름 역시 아이들의 작품이다. 어른이라는 끓는점이 100℃라면 아직은 1℃가 모자란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1℃를 채워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이다. '청소년 열정 공간 99℃'라는 타이틀에 맞게 청소년이라면 누구에게나 문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들어와 한잠 늘어지게 코를 골며 자도 되고, 게임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공부를 하거나 그야말로 자유로이 있을 수 있다. 그저 아이들끼리 스스로 정한 규칙만 지켜준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그야말로 '안 됨'이 존재하지 않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고 온전히 아이들끼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감골주민회에서 해당 공간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상주한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 온다. 무서운 십대가 가득하다는 뉴스가 난무하는데 공간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김부일 선생님은 싱긋 웃으면 이야기했다.

**"문제가 없을 리 없죠. 험기왕성한 아이들이 가득한데, 언제나 건전했(?)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또 다른 감동을 받습니다."**

실제 99℃에서는 매달 첫째 일요일에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공간을 이용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율적으로 의논해 규칙을 정리한다. 얼마 전에는 지켜지지 않는 규칙 때문에 문을 닫은 적도 있다. 발단은 설거지이다. 사용한 그릇은 스스로 설거지를 한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을 이룬 것이다. 안 되겠다 싶어 문을 닫고 단톡방에 이야기했다. "오늘은 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날이야." 아이들도 자체 반성을 했는지 이제는 설거지거리가 쌓이는 날이 없게 됐다. 옆에 친구가 설거지를 안 하고 있으면 하라고 잔소리하는 친구가 있을 정도다. 아이들은 이 공간이 무사히 운영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자다가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마시니까 관참아졌어요."**

방명록에 누가 썼는지 모를 문구에 마음이 훑 쏠렸다. 마치 "힘들었는데 이 공간에 들어오고 나니 관참아졌어요"라고 읽혔기 때문이다. 역시 아이들에겐 이곳이 마음의 안식처인가 싶었다. 돌아가는 내내 팬스레 웃음이 나는 걸 보니 이 공간에서 우연한 위로를 받은 건 그 아이들만이 아닌 것 같다. 덕분에 올라간 마음의 1℃는 한동안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 목공으로 마을과 통하다

“선생님 여기 구멍을 뚫을까요?” “선생님 오일은 어떻게 발라요?” “선생님 사포는 어디 있어요?” 아기 새가 엄마 새를 부르듯 조잘조잘 끊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만드는 건 다양하다. 야구방망이 모양의 우드 펜슬, 달 모양의 스트링 아트, 단순한 나무 책꽂이 등등... 아이들의 모습이 다르듯 만들어지는 것들도 다 다르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감골주민회 통나무 공방에서는 세상의 단 하나뿐인 작품이 만들어진다.

마을숲 카페 지하에 위치한 통나무 공방에 처음 들어서면 규모에 놀란다. 흔히들 아가자기 자그마한 공방일 거라 예상하는데, 여느 전문 공방이라도 저리 가라 할 만큼의 시설과 규모를 갖췄다. 슬쩍 공방 선생님께 물어보니 이렇게 되기까지 3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했다. 마을에 공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 목공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은 없었다. 목공에 필요한 기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무를 사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역시나 무조건 부딪혀 보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창고를 공방으로 만드는 과정을 블로그에 연재하는 안양 두드림 공방을 알게 되었고, 바로 찾아갔다. 전혀 모르는 아줌마들의 방문에 두드림 공방 선생님은 의아했고, 처음에는 도움 요청을 한사코 거절했다. 그러나 감골주민회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우르르 다시 한번 물려갔고, 간절함이 닿았던 건지, 아니면 점심 약주의 힘인지 그 자리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천군만마 같은 스승님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통나무 공방은 한 해 또 한 해 나무 다루는 기술과 장비들을 쌓아가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통나무 공방에서는 연령대에 맞춰 청소년·청년·시니어 목공과, 우드 카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통은 당일 만들 것에 대한 주제가 정해져 있지만, 이날 청소년 목공 수업은 조금 달랐다. 무언가 만들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아이들의 생각에서 나왔다. 한 아이가 한참동안 달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한다. 옆에 미술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한사코 싫다고 하더니 결국 아주 예쁜 달 그림을 완성했다. 곧 광광 못을 박는 것으로 스트링 아트가 시작됐다.

1





2

1 뽀뽀뽀뽀 숨씨도 작품이 되는 통나무  
공방 2 아이들의 생각대로 무언가 똑딱  
만들어지는 청소년 목공 시간 3 누군가  
만들어 놓고 간 귀여운 소품들이 가득  
한 통나무 공방



3



시니어 목공 교육 첫날, 사포질 한 번에도 최선이 묻어났다

또 다른 아이는 에펠탑 모양의 스트링 아트에 어떤 실을 감을까 한참을 고민하더니 “선생님 망했어요”를 열 번쯤 외치고 나서야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니셜까지 새긴 아이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모두가 각자의 작업에 집중하나 싶더니 한쪽에서 웃음이 터졌다. 개구진 표정의 남자아이가 작은 나무를 들더니 야구 방망이라며 품을 잡는다. 우드 펜슬을 야구방망이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덕분에 선생님도 주변 아이들도 한 번씩 까르르 웃음을 터트렸다.

청소년 목공과 다르게 시니어 목공에는 정적이 흘렀다. 침묵에서 나오는 어색한 정적이 아닌 신중함에서 오는 정적이다. 못질 한 번, 사포질 한 번에 신중에 신중이 더해진다.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나무에 새겨지는 것이다. 지난번 수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오늘 처음 온 분들에게 살포시 이야기를 건넨다. “여기 올 때는 반드시 밥을 먹고 와야 해요. 우리는 체력이 떨어져서 ‘밥심’으로 해야 한다고요.” 웃으며 건네는 말 한마디에 서로의 활기가 채워졌다.

여전히 드릴과 망치가 어색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주민이 통나무 공방을 찾는다. 이렇게 마을의 인기쟁이 공간이 되어 가는 건 공방에서 수익사업을 실현하기보다는 함께 배운 목공기술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목공을 통해 마을의 새로운 일지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



## 안산 감골주민회

- 사업명**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 '감골은 우리의 고향'
- 사업내용** 마을 공동체의 외연을 확대하고 마을 의제 찾기, 마을 카페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에 주력했으며,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함.
- 프로그램** 마을카페 운영, 마을축제, 마을교육, 동아리(생태, 역사, 공예, 악기, 스포츠 등), 주민 강사(퀼트, 종이접기, 리본), 마을예술단, 마을 아카이브, 청소년 활동(기획단, 캠프, 스포츠클럽) 등
- 수행기간** 2013~2015년, 2017~2018년(지역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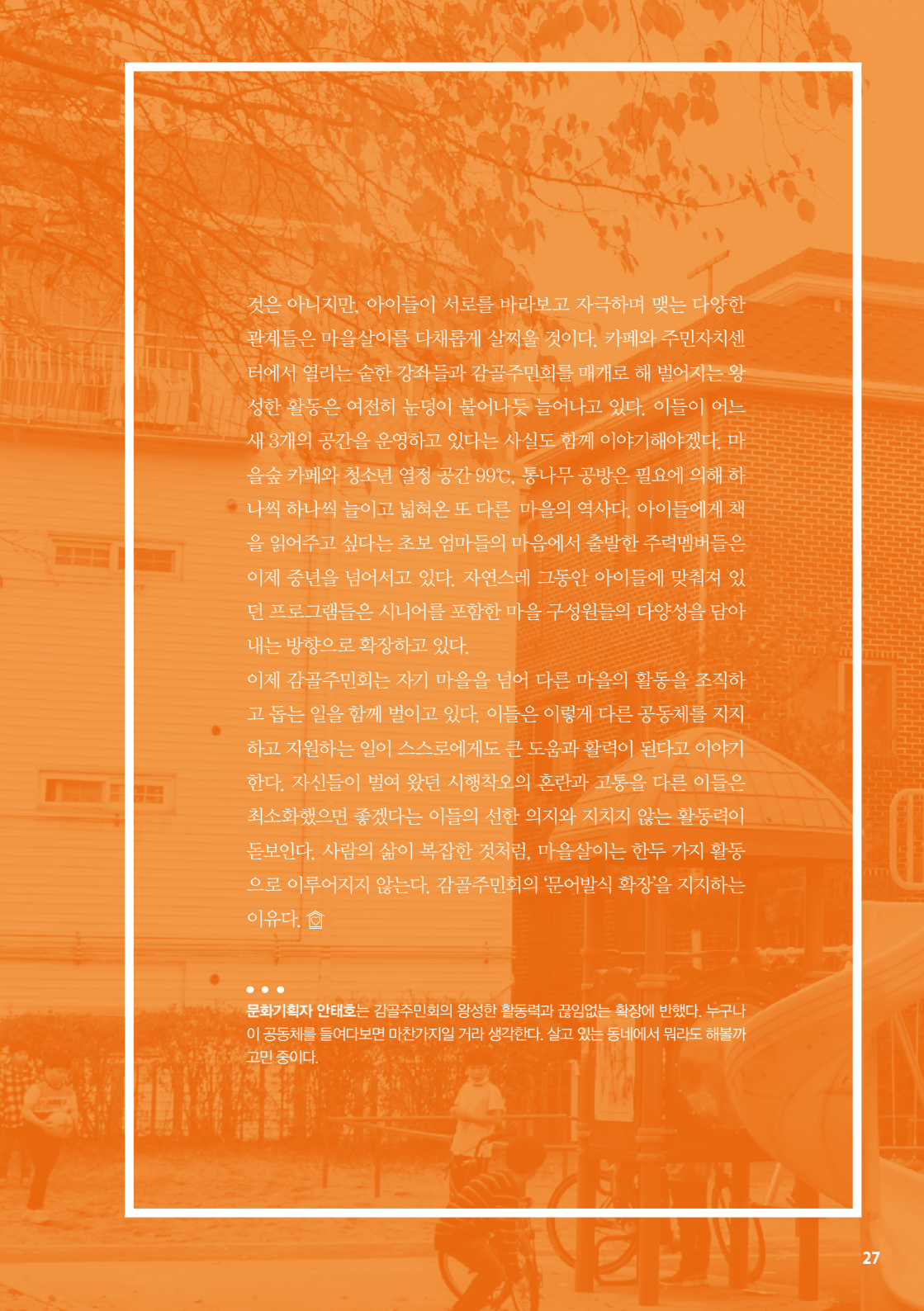


# 확장하는 공동체

글 안태호

감골주민회가 자리잡은 안산 사동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동네다. 마을에는 연립주택들이 빼곡하고, 주택밀집 지역임에도 도로는 시원시원하게 열려 있다. 우리가 흔히 동네, 마을 풍경으로 떠올리는 집들이 서로 어깨를 맞댄 골목길 같은 건 여기에 없다. 별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무난하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전형적인 중소도시 주택가다. 그러나 동네의 풍경을 구성하는 건 거리의 외관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와 활동은 같은 풍경도 전혀 다르게 보이도록 만든다. 마을숲 카페에서 본 그림이 떠오른다. 드로잉 수업에 참여한 이들의 작품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작은 사이즈의 채색화들이 불러일으키는 매우 생경한 감각에 한동안 뻘뻘 쳐다보았다. 특별한 피사체가 담겨 있던 건 아니다. 그저 아무렇지 않은 거리의 상점 간판, 편의점 앞 테이블을 그려두었을 뿐. 그런데 이상도 하지, '아, 이런 게 동네구나' 싶은 작은 감탄의 불꽃이 터졌다. 전국 어디나 다를 것 없는 풍경이라도 사람의 눈길이 가고 바라보는 시선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쌓이면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걸 새삼 배웠다.

감골주민회의 활동을 둘러보면 이렇게 삶의 자리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확장의 관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첫손에 꼽을 만한 일이 '내 아이에서 마을 아이로'의 확장이다. 사동에서는 아이가 없다면 SNS로 찾아내는 일이 왕왕 벌어진다. 마을의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나빠스터디'는 이 관계를 어른-아이에서 아이-아이로 다시 확장시킨다. 아이들이 자칫 어른들의 위계나 질서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 싶은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자극하며 맺는 다양한 관계들은 마을살이를 다채롭게 살찌울 것이다. 카페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술한 강좌들과 감골주민회를 매개로 해 벌어지는 왕성한 활동은 여전히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어느새 3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이야기해야겠다. 마을숲 카페와 청소년 열정 공간 99℃, 통나무 공방은 필요에 의해 하나씩 하나씩 늘이고 넓혀온 또 다른 마을의 역사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다는 초보 엄마들의 마음에서 출발한 주력멤버들은 이제 중년을 넘어서고 있다. 자연스레 그동안 아이들에 맞춰져 있던 프로그램들은 시니어를 포함한 마을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제 감골주민회는 자기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의 활동을 조직하고 돕는 일을 함께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다른 공동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이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과 활력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자신들이 벌여 왔던 시행착오의 혼란과 고통을 다른 이들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들의 선한 의지와 지치지 않는 활동력이 돋보인다. 사람의 삶이 복잡한 것처럼, 마을살이는 한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골주민회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지하는 이유다. ☺

● ● ●

**문화기획자 안태호**는 감골주민회의 왕성한 활동력과 끊임없는 확장에 반했다. 누구나 이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마친가지일 거라 생각한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 뭐라도 해볼까 고민 중이다.

송내동마을사랑방 | 부천문화재단

# 송내동 사랑방에 튼 작은 공

아이를 위했던 시작, 이제는 모두를 향한 마을공동체로,  
송내동마을사랑방에 모인  
이들이 벌이는 유쾌한 작당모의를 엿봤다.

글 · 사진 김정흠

“아이고, 어서 오세요! 고구마 가지러 오셨죠?” “네, 상태가 좋네요! 이거 맛있겠네.” 그 뒤로 한 명씩 들어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카페는 마을 사람들로 북적인다. 빈손으로 오는 이는 없다. 들어오는 이마다 검은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자연스럽게 냉장고에 넣는다. 개중에는 맥주도 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고구마 상자를 챙겨 들었다. “밥은 먹었어요? 일은 다 마치고 온 거예요?” “그럼요! 시간이 몇 신데.” “다음 주에 모임 있는 거 알죠? 잊지 말고 오세요.” “에이, 잊을 리가요.” 소소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왠지 모를 푸근함이 느껴진다. 오랫동안 유대를 쌓아온 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 언제나 소란스러운, 그래서 언제나 다정다감한 곳. 여기는 송내동이다.



김정흠은 여행작가이기 이전에 오랫동안 이 동네 주민이기도 하다. 학창시절 전부를 이곳 송내동에서 보냈다. 아니 글썄, 여기에 이렇게나 유쾌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니. 떡볶이 먹고, 땀땀이치며 송내동 골목을 누볐던 칠풍노도의 시기는 이로써 한층 더 아름답게 포장되었다. 다 소란의 덕이다.

#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것

“난로!” “둥글레!”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독특하다. 이름이 아니다. 별칭으로 부른다. 아이를 함께 키울 무렵부터 굳어진 것이라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마을 어른들을 봐도 깍듯하기보다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넨다. 친구의 부모님을 별칭으로 부르는 일도 다반사다. 그래도 괜찮다. 마을 공동체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아이를 혼내지 않는다.

각자 자신의 별칭을 짓고, 이를 이용해 서로를 부른다. 나이도, 성별도, 직책도 중요치 않다. 존댓말도 쓰지 않으니, 어떤 이들은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혀를 찡찡 찰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상대가 누구이든 공동체의 구성원 그 자체로서 대할 뿐이다. 마을 안에서만큼은 세상이 조금 평등해지는 순간이다.



## Community Story

송내동 마을 육아공동체

28p



## Community Place

송내동마을사랑방

31p



## Community Project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32p

거마산 친구들

34p

마을협동조합 소란

36p



## Community Tour

송내동을 여행하다

38p



## Community Review

마을사업 개요

41p

칼럼

42p



## 마을협동조합 소란

📍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70 중동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버스로는 약 세 정거장 즈음. 동신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한쪽 건물 2층에 마을카페 소란이 있다. 목공방에서 만들었다는 간판을 지나는 순간부터 아마 시골벽책해질 거다. 혹은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를 일이고.

☎ [cafe.naver.com/sorancoop](http://cafe.naver.com/sorancoop)



1 버려진 일화용 겁에 흠을 담고 꽃씨를 심어 화분을 만들었다 (게릴라가드닝)  
2 마을 아이들은 동네동에서 청마이지 마을 놓고 뛰놀지 않았을까

모두 평등한 마을공동체. 그 기원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던 때였다. 교육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학부모들도 많았다. 그중 일부는 마을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 단순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우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 그들은 마을 내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끈을 놓지 않고자 머리를 맞댔다. **대안 교육으로서의 공동육아를 실현하는 '산어린이집'은 그렇게 생겨났다.**



산어린이집은 공동육아를 통해 마을의 가치를 되새기려는 이들이 벌인 첫 번째 일이었다. 학부모들은 직접 교사를 채용했고, 그렇게 선발된 이들이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부모 중 일부를 이사진으로 구성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리를 도맡았다. 아이들이 뛰노는 환경은 물론이고, 음식과 생수 한 병까지도 학부모들이 직접 챙기는 형태였다. 더 나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새벽까지 회의한 적도 많았다고. 공동육아를 위한 모임과 끊임없이 이어졌던 이사진들의 회의는 공동체가 성숙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산어린이집을 거쳐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하교 이후에 찾을 수 있는 '산방과 후'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그 후로도 산어린이집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9년제의 학사 시스템을 갖춘 '산어린이학교'라는 대안학교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공동육아라는 공통분모가 만들어 낸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장기적으로 마을의 가치를 되살리고 싶었다. 산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던 학부모 이윤철씨는 다른 이들에게 제안했다. **"아이들이 송내동을 고향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산어린이집 학부모 중 5인이 중심이 되었고, 20여 명을 더 모아 출자했다. 마을 중심에 자리한 상가건물 4층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 친구야, 나눔장터 가져

송내동마을사랑방은 2013년에 간판을 내걸었다. 산어린이집을 거쳤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 어떤 것이든 해보자는 의기투합이었다. 공동육아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게 된 것이 마을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가 된 셈이었다. 첫 활동으로 동아리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경제학에 대해 공부해보는 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은 제철 음식을 요리해 같이 먹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 동아리가 결성됐다. 사랑방 이전부터 거마산의 생태 보호 활동을 해왔던 ‘거마산 친구들’은 생태 동아리로 이어졌다. 외부에 있던 여러 조직이 합류하기도 했다. 든든한 우군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계는 있었다. 마을 내의 다른 주민들과 조금 더 많이 소통하고, 다양한 것을 나누고 싶었던 이들에게 4층은 생각보다 높았던 탓이다. 고민이 깊어 가던 무렵, ‘어깨동무 나눔장터’를 기획했다. 어깨동무 나눔장터는 일종의 벼룩시장으로, 각자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행사였다.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고, 송내동마을사랑방을 알리겠다는 의도였다. 송내동마을사랑방이 만들어 낸 하나의 축제였다.

첫 번째 어깨동무 나눔장터가 열린 날. 사랑방 구성원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장터로 나가 다양한 물건을 내놓았다. 아빠는 천막을 쳤고, 아이는 그 앞에서 자신이 어릴 적 사용했던 물건들을 팔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역의 여러 단체에게 동참을 권유해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주전부를 만들어 먹거리를 제공하거나, 아기자기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스도 있었다. 참여자들의 노력과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어우러졌던 당시 행사는 매년 한두 번씩 장터를 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송내동마을사랑방의 존재감을 알리기에도 충분했다.

1 나무판에 그림을 그려 거리에 붙였다. 마을을 더 예쁘게 꾸미자는 아이들의 의견이었다 2 어깨동무나눔장터는 송내동 마을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었던 행사였다



## 평소처럼 하면 된다고!

송내동마을사랑방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때 즈음, 부천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제안해 왔다. 3년간 정부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꾸려보자는 이야기였다. 송내동마을사랑방 일원들은 고사했다. 우리끼리 지금도 잘하고 있으며, 행정 처리 등은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유였다. 계속되는 권유와 부천문화재단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약속 등 설득이 이어졌다. 평소처럼 그냥 하면 된다고도 했다. 결국, 송내동마을사랑방 일원들은 이를 수락했다.

처음에는 부천문화재단 측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주었다. 기존에 해 오던 것 이외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은 연극이었다. 그것도 즉흥연극(플레이백 시어터, Playback Theatre)이라는, 생소한 분야였음에도 말이다. 동아리를 만들어 사람을 모집했다. 강사료와 대관료 등은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주제만 주어진 상태에서 각자 즉석에서 캐릭터를 잡아나가고 즉흥적인 대화와 행동으로 연극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건 역시 즐거움 때문이었다고.



공동체 사람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재미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이유였다. 먼저 마을 아이들에게 물었다. “송내동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해야 할까?” “**꽃을 심고, 그림을 그리면 되죠!**” 아이들답게 순수한 이야기였지만 그만큼 확실한 정답도 없었다. 게릴라가드닝은 그렇게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마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어디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를 의논했다.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어떻게 꽃을 심을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며 사업을 주도해 나갔다. 칙칙했던 학교담장은 그림과 나무 조각으로 장식했고, 버스정류장 한쪽 구석에는 화분이 놓였다.

‘이니스나무공작소’의 객계원 대표는 ‘아빠와 함께하는 목공교실’을 운영했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4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이 목공교실은 아빠와 아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학부모도 아이들이



2

만족스러워 했단다. 작은 선반과 의자 등을 함께 만들며 유대감을 키우기에 좋았던 것이다. 마지막에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만든 탁자를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선물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을 정도로 의미가 깊은 프로그램이었다.

어깨동무 나눔장터의 규모도 커졌다. 마을 축제였던 '송학골 소리축제'와 함께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송내2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여러 주민자치조직이 나눔장터에 참여했다. 마을의 특색을 살려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는 의견도 이때 즈음 나왔다. 거마산의 도롱뇽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청정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설득력 있었다. 이로 인해 축제 명칭을 '송학골 도롱뇽축제'로 바꾸는 작업이 이어졌다. 거마산 친구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비로소 결실을 본 순간이었다.

점차 부천문화재단의 도움 없이 마을 주민들만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갔다. 주민들은 머리를 맞댄 채 끊임없이 의논하고 토론했다.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여러 테마로 마을 지도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거마산 친구들'은 거마산둘레길 지도를, 산어린이학교 학생들은 마을여행서를 제작했다. 복지팀과 안전팀을 조직해 송내동마을 복지·안전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마을 곳곳에 자리한 여러 복지 시설을 표기하고, 밤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였다. 모두 두 발로 뛰어 이루어 낸 결과물이었다.

1 흉물스럽기만 했던 방음벽에 마을의 상징인 도롱뇽 그림을 붙여 예쁘게 꾸었다  
2 아빠와 함께 하는 목공교실은 아이들에게도 아빠에게도 인기 만점이었다

## 도롱뇽이 쏘아 올린 작은 공

### 거마산 친구들이 모인 이유

어느 날 권현주씨는 마을 뒷산에 오르다가 도롱뇽 알을 발견했다. 사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다고 회고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알의 정체에 관해 물었고, 도롱뇽 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사골에서든 쉽게 볼 수 없는 도롱뇽을 도시에 있는 작은 야산에서 볼 줄이야. 그만큼 자연환경이 깨끗하다는 방증이었다. 도롱뇽을 지키고 싶었다. 주변에 있는 숲해설가 친구들을 모아 '거마산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생태 활동 조직을 만들었다. 모두 공동육아라는 울타리 안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거마산 친구들'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2월, 송내동마을사랑방이 문을 열기 직전이었다. 이들은 거마산 도롱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싶 다며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결국, 도롱뇽 모니터링 활동과 아이들을 위 한 생태교실 사업을 지원받는 데 성공했다. '거마산 친구들'은 도롱뇽 지 키기에 나섰다.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한 것은 물론, 도롱뇽 보호 표지 판을 만들어 곳곳에 설치했다. "지금까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요. 도롱뇽은 분명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거마산 친구들'을 조직한 권현주씨의 이야기다. '거마산 친구들'은 같은 해에 만든 송내동마을사 랑방의 주요 구성원이 되기도 했다.



2

1



1 거마산에서 생태놀이를 즐기는 아이  
2 아이들과 도롱뇽 지키기 활동을 하는 모습 3 '거마산친구들'은 지금도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도롱뇽이 사는 개울은 지금도 깨끗한 물이 흐른다

## 거마산둘레길을 걸어보자

2015년에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거마산에 다섯 개의 둘레길 코스를 만들었다. 거마산둘레길이라는 이름의 이 길은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활용해 개발했다. 곳곳에 생태놀이를 진행할 수 있는 나무 안내판도 달았다. 자연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즐기는 법을 간단히 소개해 놓은 것이 특징. 숲해설가가 없어도 누구나 숲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이 된 셈이었다. 어디에서 어떤 생태놀이를 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 지도도 만들어 배포했다. 거마산 친구들이 직접 숲해설에 나선 적도 많았다.

'거마산 친구들'의 도롱뇽 사랑은 마을 축제 명칭까지 바꾸게 했다.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송내2동의 마을 축제 '송학골 소리축제'의 주제가 도롱뇽으로 바뀐 것이다. 적어도 부천 내에서는 송내2동에 있는 거마산에서만 도롱뇽이 발견되었고,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 또한 하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덕분이었다. 현재 송내2동에서는 매년 '송학골 도롱뇽 축제'를 개최한다. 어깨동무 나눔장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4층에서 2층으로, 더 가까이

사람들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데서 그치기를 원치 않았다. 송내동마을사랑방을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이 서서히 마을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바랐다. 관심이 있는 여러 단체의 구성원들을 모아 협동조합교실을 열었다. 여러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두고 의논하기도 했고, 강사를 초빙해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이는 결국 마을협동조합 소란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끝나갈 때, 구성원들은 이걸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결론은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자는 것. 그리고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사였다. 송내동마을사랑방이 있던 자리는 분명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었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탓이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의를 했다.

2016년 7월, 마을협동조합 소란의 공간이 탄생했다. 마을협동조합의 첫 번째 사업은 카페다. 몇몇 조합원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 다른 마을협동조합들의 카페를 관찰하며 운영 방식을 고민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두거나, 상근 근무자를 고용하는 방법도 써 보았다. 최근에는 조합원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요일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등 여러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 가끔 작은 영화제, 공연이나 강좌도 열린다. 인문학을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모임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을협동조합 소란은 새로운 비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산어린이집 학부모 출신 위주였던 기존 송내동마을사랑방의 주축 멤버들로 구성된 1기 이사진이 임기를 마쳤다. 새롭게 선임된 2기 이사진은 송내동의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 넓게, 더 깊게 마을에 녹아들고 있는 것이다. 기존 이사진에 비해 잘 아는 게 없어서 걱정이라는 2기 이사진의 고민에 송내동마을사랑방 전 대표였던 권현주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소란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1 소란마을협동조합의 간판, 이니스나 무공작소를 운영하는 객게원씨의 작품이다 2 송내동마을사랑방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3 소란 마을카페로 이사하면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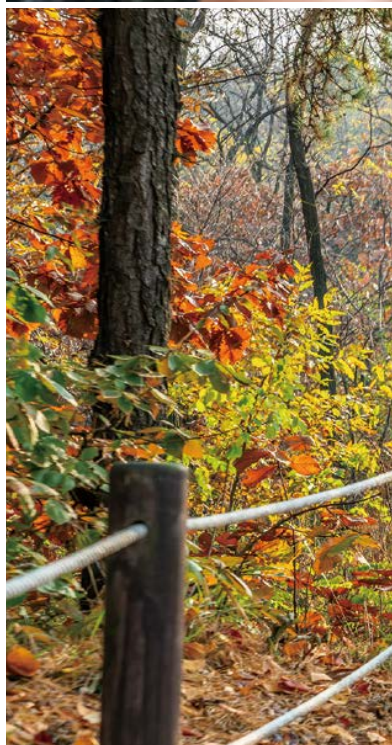
## 거마산 돌고 도는 송내동 여행

나는 송내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문화공간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고, 친구들과 골목을 쏘다니며 군것질을 한 추억도 있다. 주말이면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했던 기억도 여전히 생생하다. 대낮부터 혼자 땀땀이치고 학교를 빠져나와 햇살이 쏟아지던 공원에 앉아 시간을 보냈던 것, 이 따금 올랐던 뒷산 성주산과 거마산 등등. 송내동은 지난 30여 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다.

송내동 마을골목여행서와 거마산둘레길 지도를 손에 넣었다. 평소에도 오가는 길이지만, 이번에는 이 여행서와 지도를 들고 '여행'이라는 걸 해보기로 했다. 두 자료를 종합해 나름대로 코스도 정했다. 먼저 거마산에 올랐다. 매번 멀리 있는, 유명한 산을 찾아다녔는데 동네 뒷산은 오랜만이다. 5코스 입구에서 어렵지 않게 거마산둘레길 안내 표지를 찾을 수 있었다. 거마산 친구들이 오랫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만든 다섯 개의 코스에 거마산둘레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5코스는 산 중턱에서부터 이어지는 구간이라 초반 계단길 말고는 힘들지 않았다. 상쾌한 가을 공기가 숲에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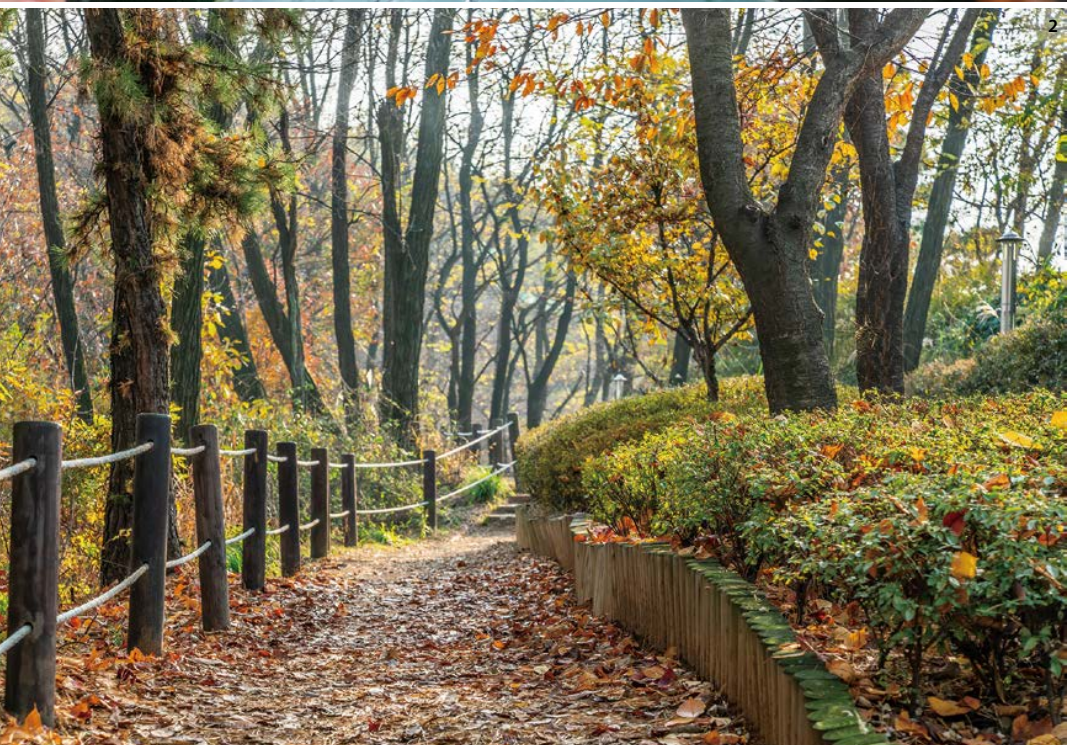
**고즈넉한 숲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을 따라 이어졌다.** 가을의 끝자락을 애써 잡고 있는 나뭇가지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지는 않았다. 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참고하며 전망대도, 소나무 숲도 지났다. 4코스 한쪽에는 아직도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약수가 흘렀다. 그만큼 깨끗하다는 뜻이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꽃이 눈에 띄었다. 약수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꽃을 심었던단. 아마 그 물이 흐르고 흘러 심곡천을 이루고, 도롱뇽의 서식지를 지날 터였다. 자연을 지키려는 이들의 노력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1 거마산 약수터는 여전히 음용이 가능하다  
2 가을이 깊어가는 거마산둘레길





1



2



도롱뇽 서식지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가을철이라 도롱뇽이나 그 알을 관찰하기는 어려웠지만, 안내 표지가 이곳이 도롱뇽 보호 구역임을 알렸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도롱뇽들이 조용히 살아가기에는 좋은 환경처럼 보였다. 거마산 친구들에 따르면 이런 곳이 거마산에 몇 군데 더 있다고 했다. 그 옆에 놓인 원두막은 이니스나무공작소의 객게원 대표와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마산에 쓰러져 있던 나무를 가져와 기둥을 세웠다고 했다. 네 개의 기둥이 다 제각각인데도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마을로 내려왔다. 송내동 마을골목여행서는 산어린이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책이었다.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곳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본다는 점이 신선했다. 성주초등학교 앞에는 어릴 적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의 문구점이 남아 있었다. 뽑기 기계 앞에 앉아서 원하는 장난감을 얻을 때까지 몇 번이고 레버를 돌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났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동네 풍경을 하나씩 살펴보며 걷고 있자니, 마음마저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라까. 코스마다 키워드도 있었다. 길거리 예술, 쉼터, 풍경 좋은 곳 등등. 스치듯 지나던 벽화도 다시 보았다. 여러 나라의 국기가 그려진 담벼락길을 지날 때는 어느 나라의 것인지 혼자 맞혀보기도 했다. 무심코 지나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나도 모르게, 송내동 마을에 들었던 정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었다. ☺



## 마을협동조합 소란

**사업명** 문화로 살인[소란]스러운 우리 마을, 송내동

**사업내용** 송내동 마을사랑방을 중심으로 마을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문화거점(목공방, 작은도서관, 생태환경)과 교육기관을 활용한 '송내동표'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가족놀이 프로그램을 심화하고, 마을공동체추진협의체를 결성해, 마을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함.

**프로그램** 주민 역량 강화 활동, 음식 나눔, 소모임 운영(보드게임, 적정기술, 전통놀이, 요리 등), 가족놀이학교(목공, 생태교육, 게릴라가드닝), 북콘서트, 나눔 장터, 성과공유설명회 등

**수행기간** 2013~2015년



# 마을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은 마을을 키운다

글 안태호

한동안 공동체 사업의 전형으로 언급되던 성미산 마을의 출발은, 알려진 것처럼 공동육아였다. 송내동마을사랑방(이하 사랑방)의 경로가 성미산과 꼭 닮았다. 산어린이집, 산방과후, 산 대안학교까지 아이들을 중심으로 뭉친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한 변화를 똑딱 똑딱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어른들을 위한 활동도 싹이 텄다. 마을주민들은 주민강사로, 마을 목공방의 목수로, 마을활동가로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 아이들은 자랐고, 마을도 그만큼 키가 컸다. 사랑방의 성장과정은 공동체 사업의 프로세스를 잘 보여준다.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서 어른들을 위한 활동으로, 다시 공동체 전체를 위한 활동으로 옮겨가고 순환하는 모습은 어느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모습들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마을이 아이들을 키웠다면, 아이들이 다시 마을을 키운 셈이랄까.

일단 기록해두어야 할 것은 파트너십에 대한 시사점이다. 사랑방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서는 드물게 문화재단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 참여했다.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으나, 부천문화재단에서 주도한 1년차 사업을 넘어 2년차에는 사랑방이 신청 주체가 되고 사업계획서도 직접 작성하게 된다. 3년차에는 재단이 협력기관으로만 이름을 올리고 실무에서는 손을 떼어 완전 자립하는 방향으로 세팅이 됐다. 그 과정에서 송내동의 주체들이 문서작성과 사업진행을 넘어 행정과 직접 교섭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익히는 성과를 거두었음은 물론이다.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랑방의 네트워크 확장이다. 사랑방은 청소년문화의집, 학교,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작은도서관, 아파트 부녀회, 교회 등 지역의 크고 작은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해 나갔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맺어진 그 많은 관계들은 공동체가 존속해 나가는 기초체력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이 체력을 바탕으로 사랑방이 이끌어낸 눈에 띄는 변화도 언급해 두어야겠다. 송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동축제의 이름이 2016년부터 송학골 소리축제에서 송학골 도롱농축제로 바뀌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축제의 이름과 주 콘텐츠를 바꾸어내는 즐거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부천에서 유일하게 도롱농 서식지가 확인되는 거마산을 외면한 채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름으로 축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사랑방의 주장이었고, 이는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

사실, 마을협동조합 소란을 구성하고 카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의 현재 모습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던 시간들에 비해 조금 활력이 찾아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걸음마에 가까운 공동체의 행보라 해도, 그 동안 함께 길러낸 활동력과 관계의 근육을 바탕으로 이들의 일상은 그전보다 한결 풍요로워졌다. 행여 비틀거리는 일이 있더라도 꾸준히 함께 걷는 송내동의 앞날을 기대한다. ☺

• • •

**문화기획자 안태호**는 문화현장을 떠돌며 말과 생각을 보태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송내동 공동체를 지켜보는 기회를 가졌던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긴다. 간만에 찾은 송내동에서 반짝, 에너지를 충전해 온 기분이다.

## (주)극단아낌없이주는나무 여기, 주인공 납시오!

소외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그들은 무대에  
서는 순간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팔을 펼치면 그 아래 날개가 자랄 틈이 생긴다는 것을.  
무대는 그런 마법의 공간이라는 것을.

글 천소현 사진 김민수

한밭(大田)에 내렸다. 그 크고 너른 평지를 가르느 몇 개의  
시내들 중에서 대전천과 유등천이 만나는 곳. 그 중심(대전  
중구) 중에서도 중심인 중촌동(中村洞)이 이 여행의 목적지  
이자 시작이었다. 맞춤 의상 숭들이 밀집한 중촌맞춤패션  
특화거리를 관통하자 주공, 시영, 금호, 현대 등등의 아파트  
단지들이 시야를 툭툭 가로막았다. 그 위용에 가려 잘 보이  
지도 않았던 곳이 두 갈래 철길 사이에 누군가의 말대로 '섬  
처럼' 자리 잡은 중촌주공2단지 아파트였다. 취약계층을 위  
한 영구임대아파트이자, 10여 년 전 중촌동 생활문화공동  
체만들기 사업이 태동한 곳. 극단 '아낌없이주는나무'가 모  
종을 심었던 곳이다.



• • •

천소현은 여행작가 겸 에디터다. 대전에서 극단 '아낌없이주는 나무'와 함께하는 동안 '아낌없이 주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춤과 노래, 연기로 행복해진 '가장 보통의 주인공'들을 목격했다. 그리고 기록했다.

# 씨 뿌리는 사람들

“아아, 마이크테스토, 마이크테스토~”

극의 시작을 알리는 번사의 해설이 술술 풀어지는 동안 용운이는 극의 전개에는 관심이 없고 관객석을 향해 연신 손만 흔들었다. 노래가 빼어난 서연이는 입장과 퇴장마다 신호를 줘야 하고, 등치가 큰 수종이는 한 박자씩 춤 동작이 느렸다. 연극 동아리 ‘개똥벌레’ 단원들이 그려내는 심순애와 이수일의 러브스토리에서 심금을 울리는 부분은 주인공의 엇갈린 사랑이 아니다. 1,2급의 지적장애와 자폐 등 중복 장애를 안고 있는 연기자들의 작은 몸짓과 표정 하나에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 몽클함이었다.

1



## Community Story

씨 뿌리는 사람들

46p



## Community History

‘대대로 살고 싶은 마을’의 서막

50p



## Community Program

주인공이 항상 행복한 무대

54p



## Community Now

함께 먹고 놀고, 비상하기

58p



## Community Review

마을사업 개요

61p

칼럼

62p



## (주)극단아낌없이주는나무

📍 **대전 중구 대종로 562** 대전역에서 택시로 5분 거리. 대전천을 지나 대종로 사거리를 앞두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창성빌딩 3층에 극단 사무실이 있다. 쉬엄 쉬엄 올라가라고 계단참마다 의자가, 지난 행사의 사진들이,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는 곳이다.

☎ [cafe.daum.net/lovely-city](http://cafe.daum.net/lovely-city)



1 극단에서 제작한 인형극용 인형들.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다 2 행복 마음주간보호센터 연극동아리 '개똥벌레'팀의 공연, 사회복지사와 발달장애인들이 수평적 관계로 무대에 선다

“올해가 3년째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대전광역시활성센터 이현수 센터장의 말이다. 그가 10년 전 중촌동 주민들과 함께 뿌린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결실들은, 다시 씨앗이 되어 새로운 장소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다.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사회복지사들이 무대에 함께 올라가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화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관심 없어 하던 아이들도 복지사들이 함께하니깐 차츰 변해 갔어요. 함께 즐기는 일상의 놀이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신감을 얻은 배우들은 그동안 받은 공연대금과 상금을 탈탈 털고, 약간의 찬조금을 얻어 지난 6월에 제주도로 나눔투어와 공연까지 다녀왔다.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제주도였다.



1 이현수 대전광역시활성센터 센터장. 그는 연극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업을 오래 고민해 왔다 2 '개동별레'팀의 공연 <행복순정 심순애>에서 열연 중인 배우들 3 시니어 동아리 어머님들은 무대 위에서도 이순옥 선생을 마음 놓고 케닝할 수 있어서 든든하다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고 '월드비전' 등 구호단체와 복지 단체에 몸을 담아 왔던 이현수 센터장은 2005년 무렵부터 복지사업으로서의 극단을 구상하고 있었다. 시작은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연극을 하고 있는 옛 동료들을 모아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올렸다. 방향은 좀 달랐지만 이 구상이 구체적인 지향을 갖게 된 것이 2009년 시작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었다. 대전 원도심에서도 중촌동은 전체 인구의 75%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소외지역으로, 문화 공간과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지인을 통해 적임자로 소개받은 오홍록 감독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동참했던 여러 전문 연극인들이 떠났지만, 오 감독님은 달랐어요. 이전부터 공동체 삶이와 복지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있었고 취약 계층을 잘 이해하고 있으셨죠.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가가 꼭 필요해요.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으면 금방 와해되거든요.”

젊은 날부터 문화공동체를 꿈꾸며 전국을 떠돌았다는 오감독의 스토리는 파란만장하다. 서울 태생의 그가 전국을 돌며 배우와 연출가로 활동했던 인생의 전반부를 생략하고 40대에 자리 잡은 대전으로만 무대를 좁혀도 그러하다. “3년을 중촌동에 살다시피 했어. 아동극, 마당극, 창작극 등등 팀이 많았는데, 연극 연습할 공간이 없었지. 중촌동 주민센터도 빌렸다가, 어디 지하 보일러실에서 모이고 그랬지. 그렇게 첫째 공연을 올렸는데, 400석밖에 없는 자유회관 극장에 800명이 꽉 들어찼어. 동장님도 카메오로 출연하시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 같았지.” 그가 꿈꾸어 왔던 문화예술 공동체의 시나리오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중촌동이라는 무대에서 열정 어린 배우들을 만나 세상에 나오게 된 셈이었다.

## ‘대대로 살고 싶은 마을’의 서막

2009년 12월, 평범한 주민들을 연극의 주인공으로 데뷔시켜 준 작품 〈사랑해요 우리동네〉는 중촌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었다. 연극을 준비하는 마을 동아리 사람들에게 들려온 마을 개발 소식, 그에 대응하며 고군분투하는 서민들의 삶은 바로 현실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때 만들어진 ‘대살미 연극동아리’의 이름은 마을의 옛 이름이기도 했다. 중말

(중촌동의 옛 이름) 북쪽, 대나무가 무성한 산 아래 마을을 ‘대살미’라고 불렀었다. 그 대나무들은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美) 동네’라는 의미를 더했다. ‘무름이 아동 인형극 동아리’, ‘중말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등 당시 활동했던 동아리들의 이름도 알고 보면 모두 중촌동에 속했던 옛 마을들의 이름이었다. ‘찾아가는 골목예술축제’도 열고,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방문 공연도 다니며 활기가 넘쳤던 대살미생활문화공동체는 생문공 사업 졸업 후인

2011년 마을기업(대표 이용욱)으로 독립했다. 그해 7월 술밭공원 근처 건물 지하에 ‘대살미마을극장’도 마을 전체의 축하 속에 개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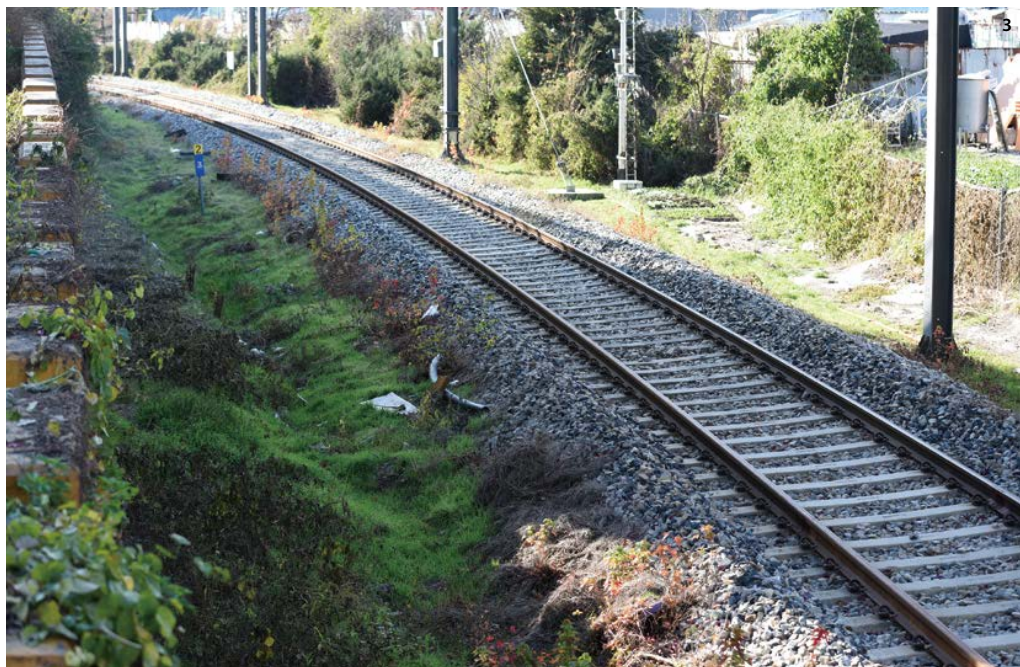
팸플릿 속 얼굴로부터 8년 후, 이용욱 대표를 만나기 위해 중촌동을 찾았다. 2여 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대살미마을극장에서 불과 50여 미터 거리에 이 대표가 운영하는 토마토도시락 대전중촌점이 있었다. “처음 무대에 섰을 때 정말 신이 났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거쳐 간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마을극장이 있는 서울 성미산 공동체도 다녀오고 버스 끌고 통영 앞에 사랑도라는 섬에도 세 번이나 가서 공연을 했어요.

1





1 중촌동 도로에 서 있는 마을지도 2 중촌초등학교, 중촌동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한창일 때 무릎이 인형극 동아리를 했던 꼬마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됐다 3 열차가 달리지 않는 철로, 중촌주공2단지 아파트는 두 갈래 철길 사이에 섬처럼 자리 잡고 있다





자영업이 잘됐을 땐 아르바이트만 남겨 놓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고살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래요. 열정은 여전하죠.” 전문 배우들에게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수익창출인지라 현재 마을기업으로서 (주)대살미생활문화공동체의 활동은 미미하다. 대신 극단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손을 보탠다. 언젠가 상황이 호전된다면 다시 뭉칠 마음과 역량은 충분하다. 공동체가 배출한 강사와 배우들이 여전히 마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가 바로 이순옥 선생이다. 종촌동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도맡아 해왔던 이순옥 선생은 대살미 연극동아리 창립멤버이자 현재 극단 아낌없이주는나무의 인형극 지도강사다. 연극이라고는 생각도 해본적 없었다는 그는 지금 오감독을 옆에서 보조하며 극단을 돌보는 주축 멤버다. “극단 형편이 어렵죠. 직장처럼 월급을 받았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약간의 강사료를 받고 활동해요. 그래도 오랜 시간 옆에서 감독님 하시는 걸 유심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라도 더 보태주기 위해 애쓰시고 화도 한 번 안 내시거든요. 나도 힘이 닿는 한 도울 거예요.” 공연이나 모임이 있는 날 아침 일찍 종촌동에 가서 할머니들을 픽업해 오는 것도, 식사 배급이 끝לו루 이뤄지도록 챙기는 것도, 공연 30분 전 인형극 소품을 똑딱 급조해 내는 것도, 시니어 단원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객석에서 동작을 알려주는 것도,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보는 사람마다 쥐어주는 것도, 모두 이순옥 선생이다.

1 인형극에 필요한 소품들은 극단 사무실에서 직접 만들어 쓴다 2 마을기업인 대살미생활문화공동체 이용옥 대표 3 대살미 연극동아리 창립멤버이자 현재 극단에서 인형극 강사로 활동 중인 이순옥 선생



## 주인공이 항상 행복한 무대

3년간의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서 졸업한 후에 대살미생활문화 공동체는 마을기업으로 독립했고, 오감독은 2013년 (주)극단아낌없이 주는나무의 대표가 됐다. 극단 사무실은 중촌동에서 멀지 않은 선화동에 마련됐다. 초창기부터 추구한 것이 문화복지를 위한 자활기업이었기에 중촌동을 넘어 대전 전역에서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현재 이순옥 선생을 포함한 5명의 강사가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파견되어 인형극과 연극을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 축제를 비롯한 무대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어려운 단체들이 있으면 공간도, 장비도 흔쾌히 공유해 준다. 처음 극단을 인큐베이팅 했던 이현수 대전광역시자활센터 센터장도 여전히 총괄 기획자로 함께하고 있다.

“전국에 1,200여 개 이상의 자활기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자활기업은 ‘극단아낌없이주는나무’가 유일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상황과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무대에 서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문화단체가 사실상 여기밖에 없는 셈이죠.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책정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거의 봉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전에 문화 복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극단의 활동에 대해 물으면, 신기하게도 모두 똑같은 대답을 했다. 무엇보다 오감독의 건강이 걱정이라고, 각본, 감독, 스태프, 음향 등 1인 10역을 거뜬히 해내는 모습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사실 오감독은 이틀에 한 번 투석을 받으며 신장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이자 3급 장애인이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극단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하루가 끝나고 홀로 남겨진 시간에 신음하면서, 그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 리허설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배우들의 칼군무나 매끄러운 진행이 아니다. “양쌤, 시끄러워도 난방기를 켜 줘야 해. 애들이 추워한다고. 어차피 음향 크게 틀면 다 들리니까.” “상호쌤, 어머니님 입장할 때는 객석을 환하게 해줘야 해. 올라오다 다치면 안 되니까.”

1



2



3



1 대살미 연극동아리 창립멤버들의 실제 모습을 담은 대형 걸개그림 2 오홍록 감독의 초상화는 극단 연습실에 걸려 있다 3 무대 음향을 조절하는 오홍록 감독





1 지역아동센터, 중촌초등학교 등 여러 단체의 아이들이 1년 동안 준비한 인형극을 발표하는 무대는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2 공연 후 소감을 말하는 아이들 3 연습실 복도에 지난 공연과 활동을 기록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인형극(연극) 페스티벌’은 소중한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첫날에는 극단 소속 강사들이 한 해 동안 지도해 온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대학교 등의 인형극 동아리들이 다양한 주제의 인형극을 차례로 무대에 올렸고, 둘째 날은 행복이음주간보호센터(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돌보는 전문 사회복지시설)의 연극동아리 ‘개똥벌레’팀의 공연이 있었다. 무대는 소박했고, 내내 어설픔고, 관객 수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무대가 없으면 무대를 만들고, 관객이 없으면 관객을 찾아가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주인공들의 행복이다. 얼마 전에는 어릴 적 인형극 무대 덕분에 공연 창작 분야로 진학하게 되었다며 오감독에게 감사 전화를 걸어온 아이가 있었다.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중증 조현병 환자들도 감동만큼은 기억하고 안부를 묻기도 한다. 30분도 안 되는 무대의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일생을 관통하는 희열이다.

리허설에서, 공연 중에도 오감독이 즐기게 호명하는 이름! ‘상호쌤’을 만났다. 우송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봉사동아리를 통해 오감독과 인연을 맺은 이상호 선생은 문화와 복지를 접목하는 오감독의 비전에 공감해 4년째 극단에 몸담고 있다. 기술적인, 행정적인 부분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감독님은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과 선생, 장애인과 복지사들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무대에 서게 만드세요. 그런 세세한 스타일까지 모두 배우려면 3년 이상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오고 있는 이유죠.” 이 속 깊고 헌신적인 젊은이에게 쏟아지는 어머님들의 무한 애정은 곧잘 손에 쥐여주고 입에 넣어주시는 간식들로 표현되기에 체중이 퍽 불었다면서도, 그것이 어머님들의 마음임을 알기에 거절하기를 포기했다고. 시니어마당극동아리 회원들은 중춘동 뿐 아니라 대전 전역에 거주하는 60~80대 시니어들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와 같다. 이들을 4년 동안 지켜본 이상호 선생은 말했다. “여기 어머님들은 에너지가 다르세요. 다른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과 확실히 달라요.” 계단의 각 층마다 쉬어갈 의자를 두어야 했을 정도로 3층 계단을 버거워했던 어머님들이 연습을 거뜬히 해내고 지친 기색 없이 무대에 서신다. 놀라운 변화다. 20대의 이상호 선생이 트로트 음악을 입에 달고 살 만큼 좋아하게 된 것도 놀라운 변화지만 말이다.



## 함께 먹고 놀고, 비상하기

중요한 연습이나 공연이 있는 날에는 밥도 같이 먹는다. 오감독은 여러 번 말했었다. “젊은 날 하도 먹고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누가 나한테 밥 먹는 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고 싶은 연극을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야.” 그래서일까, 공동체가 함께 밥을 먹는 일에 대한 그의 애착은 ‘밥 퍼 주는 극단’이라는 별칭까지 달아 주었다.

오감독이 직접 아침 일찍 장을 보고, 국도 한 술 끓여 놓는다. 30~40명이 한 끼를 먹을 분량이다. ‘음식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 하기도 한다’는 그의 말은 식탁에서 증명됐다. 흥취가 넘쳐나게 들어간 미역국, 직접 담가서 몇 달째 먹고 있다는 마늘종 장아찌, 삼삼하고 시원한 물김치, 밥상의 격을 높여 준 조기 찜까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았다. 혼자 살면서 입맛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며 대중 끼니를 때우는 노인들도 이곳에서만큼은 즐겁게, 맛있게 식사를 한다. 많은 경우, 이들에게 그날의 첫 끼이자, 마지막 끼니가 된다.



(주)극단이김없이주는나무의 살림살이는 극단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과 꽤 닮아 있다. 후원회를 조직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소소한 정부 지원 사업, 감사 파견 수익 등으로 근근이 운영하면서 몇 달째 월세가 밀려 있다. 빠듯하지만 시니어 동아리 회원들을 모시고 군산으로, 청송으로, 나들이 겸 워크숍도 다녀오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발표회, 찬조출연 등의 무대를 마다하지 않는다. 공연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3단 화장품 케이스를 열어 평소에 만질 일 없었던 화장분이며 루주를 바르는 동안 남편 기일이라 빠진 누구, 몸이 아파서 못 온 누구, 병원에 입원한 누구에 대한 소식들이 빠르게 공유됐다. 축제가 열렸던 중촌동 아파트 공터에는 새로운 임대 아파트가 우뚝 솟았지만 여전히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도, ‘사는 게 연극보다 더한’ 현실은 쉽게 달라지지 않지만, 곧 무대다. 무대에서는 모든 것이 잊힌다.

1 공연이나 중요한 연습이 있는 날에는 30~40명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 2 식사 준비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익숙하게 착착, 함께 먹어 더 맛있다





시니어 마당극동아리의 대동한마당. 어머님들은 공연을 시작한 뒤 더 건강하고 밝아지셨다

사흘간 이어졌던 릴레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시니어마당극동아리의 대동 한마당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즉흥 퍼포먼스였다. 뒷모습으로 웅크린 어머님들은 신호에 맞춰 상반신을 돌려 비상하고 싶은 곳으로 시선을 던진 후, 다시 한 번 몸을 반동시켜 양 팔을 펼치며 비상했다. 그 순간 일제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크게 외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누군가의 이름이거나, 어떤 존재이거나, 필요한 무엇이었을 것이다. 다른 소리에 섞여 오감독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미처 들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간에 그의 비상이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무대는 언제나 그런 마법의 공간이므로 🍷

## People

### “연극은 목적이 아니야.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지”

(주)극단아낌없이주는나무 오홍록 대표



“내년을 원년으로 삼을 거야.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지. 2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필요해.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어머님들과 텃밭도 가꾸고, 잘되면 복지식당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오감독은 꿈을 말했다. 연극은 목적이 아니라 매개일 뿐, 그가 원하는 것은 무대가 아니다. 모든 이가 평등하게 문화를 누리며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문화복지 공동체를 꿈꾼다.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꿈이며 스스로가 몽상가임을 인정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준비하며 서로 친구가 되고, 삶을 보듬는 변화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1인 10역을 마다하지 않았던 오감독에게는 이제 배역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사람을 양성하려고 해. 문화와 복지 분야를 모두 이해하는 ‘문화복지예술사’를 교육하려는 거지.” ‘아낌없이주는나무’는 계속 자라고 있다.



### (주)아낌없이주는나무

**사업명** 중촌 연극동아리 '사랑해요, 우리동네'

**사업내용**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중촌동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연극 동아리 축제를 통해 자생력 있는 생활문화 공동체를 만들.

**프로그램** 대살미생활문화공동체 연극 동아리 운영, 무릎이 어린이 인형극 동아리 운영, 중말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운영, 지역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우리 동네 문화기획가 워크숍', '생활연극 동아리 페스티벌' 및 워크숍 공연, 찾아가는 골목축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활동 등

**수행기간** 2009~2011년



# 예술가와 마을의 만남이 바꾼 것들

글 안테호

극단 '아낌없이주는나무'는 2009년부터 3년간 대전 중촌동에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다. 다른 마을과 달리, 문화복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2009년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복권기금의 후원을 받아 사업참여 대상이 문화소의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로 한정되어 있었다. 사업 초기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 관점으로 시작된 것이다. 주민단체 중심의 활동은 2011년 이후 기획자나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뒤에 나타난 현상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아낌없이주는나무는 예술가(단체)가 주도한 1기에 해당되는 사업유형이다. 이미 마무리된 지 한참이나 지난 10년 전 사업을 굳이 사례지로 꼽은 것은 예술가(단체)가 지역주민과 만나 활동한 결과가 지역에 어떻게 환원되고 있으며, 예술가(단체)에게는 어떤 영향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다. 그동안 생문공 사업에 여러 예술가와 단체들이 참여했지만, 외부자인 예술가(단체)가 주민들과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다. 또,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정리되는 상황도 많았다.

그런 점에서 아낌없이주는나무의 사례는 좀 특별하다. 극단은 중촌동이라는 대전의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연극을 베이스로 활동을 진행했다. '대살미'(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美) 마을)라는 마을의 옛 이름을 내걸고 거주자들의 사연을 모으고 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해 공연을 만들었다. 극단 활동 초기에 경험한 생문공 사업은 단체의 활동에 많은 영감을 주는 동시에 활동 방향의 나침반이 됐다. 현재는 연극을 매개로 한 지역의 문화복지 사업을 폭넓

게 수행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중촌동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중촌동에서 인연을 맺은 주민들은 여전히 극단의 단원으로, 주민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사실, 어느 분야든 장르 중심의 활동은 해당 장르에 매몰되기 쉽다. 장르의 문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예술 바깥의 일들과 이런저런 마찰이나 충돌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는 연극이라는 분야의 특성이 잘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연극은 문학이나 미술 등의 장르와 비교할 때 물리적인 속성이 더 강하다. 몸을 통째로 담그지 않으면 공연이라는 행위의 성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함께 밥을 먹고, 활동의 시간을 같이 하며 다른 삶들이 융화되는 과정이 자연스레 발효된 것이 아닐까. 끼니를 같이 하고 일상을 나누는 극단의 활동은 마을살이와는 거리가 있지만, 또 하나의 공동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사례는 예술가(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오히려 대표 는 '사업은 끝나도 인연은 끝낼 수가 없다'고 표현한다. 지난 10년의 세월은 그에게 공동체 활동으로 시작한 사업이 삶이 되는 과정이었다. 그가 '식구가 되어 버렸다'고 표현하는 주민들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동시에 주민들에게 남은 경험과 관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무대에서의 경험, 자신들의 이야기가 극화되어 주인공이 되어 본 경험은 주민들을 어떻게 바꿔냈는가. 전체 주민들의 삶을 모두 뜯어볼 순 없지만, 최소한 극단에서 강사와 배우 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삶의 다른 장이 열렸다. 수치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자부심과 활력이 남아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

문화기획자 안태호는 예술가와 지역의 만남에 관심이 많다. 여전히 예술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신세동 그림애문화마을 달동네가 아닌, 달빛동네 이야기

하늘과 가까운 마을이어서였을까?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달빛이 마을에 내려앉았다.

글 · 사진 · 그림 손천수

“피란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신세를 지고 간다 캐서 신세 동이라 불렀데이.” 동네 어르신이 말씀하신 신세동은 안동 역 부근 꽤 가파른 경사를 타고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다. 그렇게 인정을 주고받던 시절이 먼 과거가 되어 버리자, 마을은 인근 주민들과의 교류가 끊긴 채 고립됐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는 달동네가 되었다. 오래전 그려진 벽화로만 간간히 조명을 받던 '신세동'에 작은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건, 2016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었을 무렵이다. 하늘과 달을 듯 가까운 마을이어서였을까? 달빛은 다른 어떤 마을에서보다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

손천수는 펜과 카메라로 여행을 그리는 여행쟁이다. 안동 그림애문화마을에서 '달동네'가 '달빛동네'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달빛이 달은 그림애문화마을의 놀랍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 신세 한 번 지러 오시죠!

처음 만난 달동네 신세동



늦가을, 여행하기 딱 좋은 시기에 신세동을 찾았다. 하늘은 높았고 마을 주민들은 햇살처럼 따스했으며 거리의 고양이도, 나뭇잎들도 생기가 넘쳤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전에 연락을 나눈 적이 있는 정운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고, 오늘 저희 장날이라 다들 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이리 오시지요.” 짧지만 담백하고 깔끔한 한 번의 통화는 걸치레가 없었다. 마을살이를 먼저 생각하는 주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진짜배기 마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첫인상에서 느낀 마을의 아름다움이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b>Community Program</b> .....	
그림애 월영장터	68p
 <b>Community Story</b> .....	
그림애문화마을	70p
그림애 게스트하우스, 할매네 집밥	74p
벽화마을 여행	76p
 <b>Community Project</b> .....	
마을, 학교를 품다	78p
 <b>Community Now</b> .....	
달피는 꽃동네	80p
 <b>Community Review</b> .....	
마을사업 개요	81p
칼럼	82p





## 신세동 그림애문화마을

📍 경상북도 안동시 성진길 12-3 안동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방향으로 직진. 그대로 웅부공원 입구까지 직진 후 웅부공원을 마주본 채 오른쪽으로 직진. 안동시립도서관 골목으로 진입 후 동부초등학교 담벼락을 따라 직진하면 달피는 꽃동네 입구 풋말이 보인다.

☎ [cafe.naver.com/picandong](http://cafe.naver.com/picandong) 📖 [blog.naver.com/grimae1313](http://blog.naver.com/grimae1313)



그림애 월영 정자가 열리는 월영교의 배어남 가을 단풍

## 가는 날이 바로 그 장날!

말 그대로 가는 날이 장날이 되다니!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를 경험하게 되다니, 행운으로 느껴졌다. 그것도 올해 마지막 장날이었다. 기분 좋게 하늘을 올려다보니, 때마침 가느다란 달빛이 살포시 웃고 있었다. '그림에 월영장터'는 굉장했다. 무르익은 가을 단풍과 잔잔히 흐르는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월영교 인근이라는 위치가 무엇보다 환상적이었고, 상상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많은 물건을 취급하는 규모에도 놀랐다. 그림을 그리는 젊은 작가부터 손수 만든 음식들을 가져온 어르신들까지, 장터에 참여 중인 모든 이들에게서 웃음과 활기가 넘쳤다.

그림에 월영장터는 신세동 그림애문화마을의 핵심적인 사업이다. 2015년 작은 공터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장터는 다음해 월영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단기간에 안동에서 가장 큰 장터 중 하나로 성장했다. 안동에서도 빼어난 관광지로 알려진 월영교에 자리 잡은 덕분에 매출액도 웅돈벌이 이상이다. 잘 팔리고, 사람도 몰리는 인기 장터로 성장한 배경에는 마을 주민들의 변화가 있었다. 처음엔 수동적이었던 이들이 차츰 능동적으로 변해 간 것. 달동네 '신세동'인 시절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었다. 달동네가 달빛동네로 변해 가는 변화의 출발점에 '그림에 월영장터'가 있었다.

장터를 둘러보다 예쁜 공예품들을 팔고 있는 앨리스공방 부스에 들렀다. 직접 만든 공예품들을 만지작거리며, 행복한 미소를 품고 있는 작가님께 물었다.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시고, 행복하시죠?" 수많은 인파를 보며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었으나 돌아온 답변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했다. "네. 그도 그렇지만, 이 마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이고 축복이죠." 마을에 변화를 불러온 것은 장터지만, 그 장터를 이끌어 가는 것은 사람들의 진심이었던 것. 신세동의 달빛에 이끌려 모인 따뜻한 사람들이 마을의 복이기도 했다.

장터가 끝난 후 함께 한 저녁 식사 메뉴는 안동다웠다. 오리지널 명물 '안동찜닭' 뜯으며 보낸 맛있는 밤. 사소한 질문들은 조금 미뤄 놓고, 좋은 밤, 사람들과의 시간을 오롯이 즐겼다. 달빛이 풍성하게 쏟아지는 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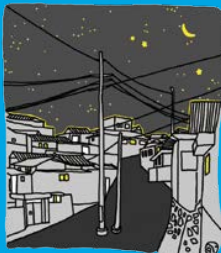


1 달빛동네로 변화 후, 매일매일 웃음이 가득한 마을 어른신들 2 그림에 문화 마을을 이끌어 가는 진짜 일꾼, 마을 청년들 3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는 그림에 웰빙장터



## 달빛에 이끌린 따뜻한 사람들

달빛 내린 신세동,  
이젠 '달빛동네'



### ☆ 2005년부터 13년째 마을을 위해 애쓰는 주진도 통장

통장님의 첫 마디는 강렬했다. "미쳤어! 나는 이 마을에 미쳤다고,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면 못해." 스스로 신세동 마을에 '미쳤다'고 하실 만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마을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을 척척 해결하시는 그림애문화마을의 슈퍼맨.

### ☆ 마을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정윤정 대표

"이상해요. 자리가 좋은 건지 제가 잘하는 건지,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고요. 호호." 통장님과과의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귀여운 말투로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소중한 인재. 사업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수주해 내는 특기를 지녔다. 지금은 자신과 비슷한 A급 인재들을 양성 중이다.

### ☆ 마을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청년들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모여 마을에 필요한 기획, 디자인, 공예, 마케팅 등 해내고 있다. 마을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소중한 일꾼들.

### ☆ 오래전부터 마을 벽화를 전담 중인 김휴창 작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내가 그린 거야. 초등학교 벽면에 그려진 커다란 얼굴 있지? 그것도 작년에 내가 한 거지. 사람들이 좋아해. 내가 참여했던 마을들은 다 잘 됐다니까." 50대 중반까지는 주로 화실에서 유화를 그렸다. 건강이 악화되어 쓰러졌던 적도 있지만 칠십대가 된 지금은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마을 벽화를 그리신다.

1 마을 벽화 작업의 주역, 이강준 총괄디렉터(좌)와 김휴창 작가님(우) 2 넙킨아트 수업이 진행되는 엘리스 공방 3 달빛을 가득 머금은 그림애 게스트 하우스 골목 4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래교실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3



4

## 달동네에서 달빛동네로

달빛에 포옥 반해버린 나



☞ 2015년 마을에서 힘겹게 시작했다가 2016년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을 받으면서 월영교 근처로 자리를 옮긴 '그림에 월영장터'의 성공은 신세동의 자생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 치니치니 꽃차, 수풀림공방, 앨리스공방, 솔이네 수제조청 등 실력 있는 작가들이 장터에 참여하면서 마을

과의 지속적인 교류(매장 운영, 수업, 신규 사업 추진 등)를 통해 활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 그림에 월영장터의 성공을 바탕으로 마을 초입에 생긴 '할매네 점빵'은 할머니식 무한 애정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마을 어르신들이 공방에서 만든 다양한 공예품들도 판매했다.

☞ 여행자를 마을로 끌어당기는 매력 넘치는 벽화들. 신세동 마을 사람들, 마을의 야경, 마을 강아지 등 마을 이야기를 담백하게 담아내서 더욱 정겹게 다가온다.

☞ 공동체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마을은 신세동(신세동 벽화마을)이 아닌 신세동 그림애문화마을로 불린다.



## 대화가 술술 익는 가든파티

지난밤 좋은 기운을 받은 것인가, 숙면을 선사해 준 그림애 게스트하우스를 둘러봤다.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스런 손길이 느껴지는 예쁜 숙소다.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림애 게스트하우스는 그림애문화마을의 주요 사업이다. 새로 지어올린 건물이 아니라 낡은 한옥을 정겹게 개조해서 외할머니 집 같은 모습이다. 한 땀 한 땀 그려놓은 그림부터 알록달록 가을 색으로 칠한 벽지,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조금 투박하지만 정겹고 어색하지만 아름다웠다. 게스트하우스 내에는 ‘모모 책방’이란 쉼터도 있다. 항상 개방해 두고 있기에 마을 어르신과 아이들 그리고 여행자들까지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 게다가 모모 책방엔 멋진 바리스타(할매네 점빵의 커피 선생님)가 있어서 언제든지 완벽한 밸런스의 커피와 꽃차를 즐길 수 있다.

분기마다 그림애문화마을의 가든파티가 열리는 곳도 이 게스트하우스다. 가는 날이 장날이더니, 이번에는 파티까지 열렸다. 아침부터 그림애 게스트하우스가 북적거렸다. 매일 보는 이웃들이지만 새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삼겹살 냄새가 맛있게 피어올랐다. 잘 익은 삼겹살 한 점, 아니 세 점을 입 안 가득 넣고 넉넉해진 몸과 마음에 기대어 술잔을 기울였다. 맛있는 연기, 맛있는 웃음 가득한 그림애문화마을의 가든파티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림애문화마을만의 방법이다.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데, 마을 사람들과 장터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정규 가든파티와 외부로 나가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비정규 가든파티가 있다고, 언쟁을 할 때도 있지만, 곧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풀어진다. “우게! (우게) 우게! (우게) 잔을, 비우게!” 우렁차고 익숙한 건배사와 함께 마무리된 가든파티. 오늘도 그들의 잔은 달동네를 비우고, 달빛동네를 담는다.



1

2





1 케이크 선물에 함박웃음짓는 정윤정 대표 2 외할머니집같은 정겨운 모습의 그림에 게스트 하우스 3 모락모락 맛있는 삼겹살을 굽고 있는 앨리스님(앨리스 공방 운영) 4 우게(우게!)우게(우게!)잔을, 비우게!



## 할매네의 ‘당연한’ 무한 애정

“야옹~.” 고양이이다. 그것도 세 녀석이나 와서 지켜보고 있다. 무서워하진 않지만 조금 경계하는 듯한 녀석들에게 살포시 다가갔다. ‘훗~ 이런 것쯤이야.’ 고양이님의 집사 생활을 오래 해온 덕분에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정말이다!) 나는, 능숙하게 인사를 나눴다.

“안녕? 고양이야, 방해할 생각은 없어. 잠시만 머물다 갈게.”

“고양이가 아니고 주인이다! 이 마을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고, 작은 주인이라고 부르도록 해.”

“귀찮게 하지만 않는다면, 며칠 머무는 걸 허락하지. 예헴.”

고양이들은 그림애문화마을의 작은 주민들이었다. 아직도 고양이를 ‘요물’이라며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마을은 달랐다. 어르신들로부터 동거를 허락받은 고양이들은 마을을 구성하는 어엿한 식구가 됐다. 그들 사이에 소문이 났는지 점점 더 많은 고양이들이 살기 좋은 그림애문화마을로 이사를 오고 있다고, 마침 동네 한 바퀴 돌아볼 생각이었는데, 고맙게도 가이드가 생긴 셈이다. 종종걸음으로 고양이를 따라 그림애문화마을 탐방에 나섰다.

마을 초입에서 ‘할매네 점빵(작은 가게)’을 만났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할매님들이 운영하는 작은 마켓인데, 그림애 월영장터와 함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마켓이자 카페이고, 안내소의 역할도 해내는 만능 공간이다. 마을 어르신들이 작가들과 함께 공방에서 만든 다양한 공예품과 꽃차들을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냅킨아트로 만든 다용도함과 서랍장, 통장님이 만든 박 공예품, 목공예 장난감 등이 눈길을 끌었다. 할매네 점빵을 가득 매운 향긋한 커피향에 이끌려 주문을 넣었다.

“커피 한잔 주세요.”

“핸드드립이라 시간이 좀 걸리게 기둘리소.”

“와~ 핸드드립이요? 어렵지 않으세요?”

“이거 다 교육 받았단 아이고, 꺾끗하게 내려줄 테이 기둘려 보소.”



1 그림애문화마을의 작은 주민, 고양이들

2 무한 애정이 담긴 푸짐한 시루떡 3 따뜻한 햇살 아래 낮잠을 즐기는 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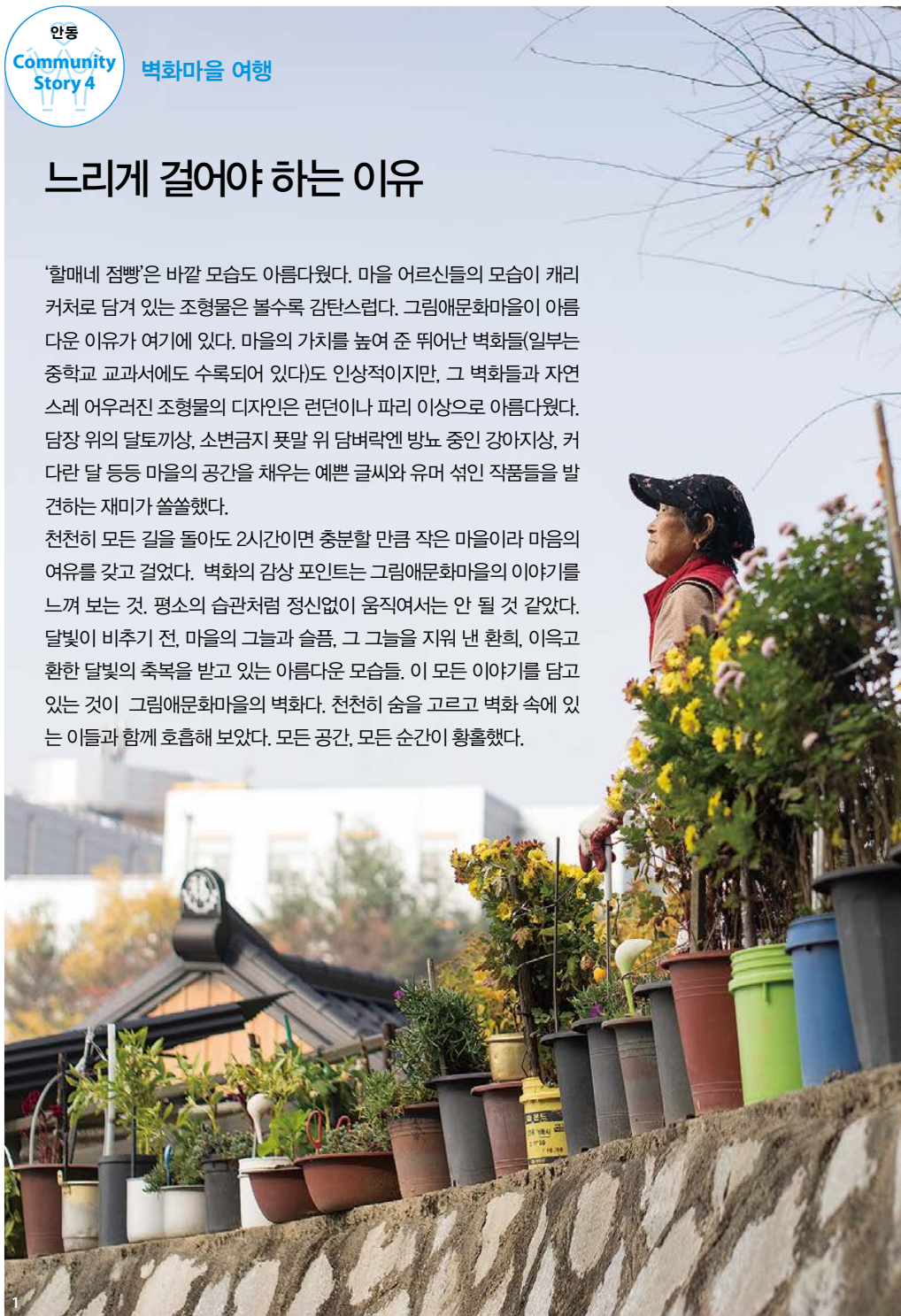


커피 내리는 법을 제대로 배운 할머니이, 바리스타보다 더 바리스타처럼 멋지게 커피를 내려 주신다. 할머니의 손맛이 제대로 담긴 커피라, 이보다 더 그윽한 커피가 있을까. 그런데 커피만 나온 것이 아니다. 뭔가 가득 담긴 접시가 함께 놓여 있다. “출출하실 간데 떡 좀 드시고 가이쇼,” 1+1 이벤트도 아닌, 1+10 특급 서비스다. 넉넉하게 담긴 시루떡에 눈물이 다 날 지경이다. “많으면 나눠 먹고, 모지라면 얻어 먹고,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잉교.” 지극히 당연하단 듯 말씀하시는 할머니에게서, 요즘 세상에 귀해져 버린 ‘당연함’을 배웠다.

## 느리게 걸어야 하는 이유

‘할매네 점빵’은 바깥 모습도 아름다웠다.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이 캐리커처로 담겨 있는 조형물은 볼수록 감탄스럽다. 그림애문화마을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을의 가치를 높여 준 뛰어난 벽화들(일부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도 인상적이지만, 그 벽화들과 자연 스레 어우러진 조형물의 디자인은 런던이나 파리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담장 위의 달토끼상, 소변금지 푯말 위 담벼락엔 방노 중인 강아지상, 커다란 달 등등 마을의 공간을 채우는 예쁜 글씨와 유머 섞인 작품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천천히 모든 길을 돌아도 2시간이면 충분할 만큼 작은 마을이라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걸었다. 벽화의 감상 포인트는 그림애문화마을의 이야기를 느껴 보는 것. 평소의 습관처럼 정신없이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달빛이 비추기 전, 마을의 그늘과 슬픔, 그 그늘을 지워 낸 환희, 이윽고 환한 달빛의 축복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그림애문화마을의 벽화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벽화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호흡해 보았다. 모든 공간, 모든 순간이 황홀했다.





2



3

1 많은 화분을 가꾸시던 마을 어르신.  
어르신에게 화분은 벗이고 말동무이자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다 2 그림에  
문화마을의 마스코트, 달토끼 3 마을  
입구에 위치한 할머니네 점빵

## 우리, 온천으로 소풍 가요

서서히 번져 가는 달빛



마을 꼭대기엔 전망대와 ‘그림애 카페’가 있다. 두 곳 모두 예쁘다. 카페는 마을 앞 안동 동부초등학교 교사인 정선생님이 운영하는 곳이다. 특히 노을이 질 무렵 카페에 앉으면, 창문 너머의 마을 풍경이 압도적이다. 클림트의 <키스>보다 황홀하고, 고흐의 <해바라기>보다 강렬한 노을빛 하늘. 그림애문화마을을 방문하게 된다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감상해야 할 장관이다. 그리고 이어진 정선생님과 대화.

“우리 학교는 소풍을 온천으로 가요.”

“온천이요?” (아이들이 온천을 좋아하나? 신기하네.)

“네. 온천이요. 1년 넘게 목욕 한번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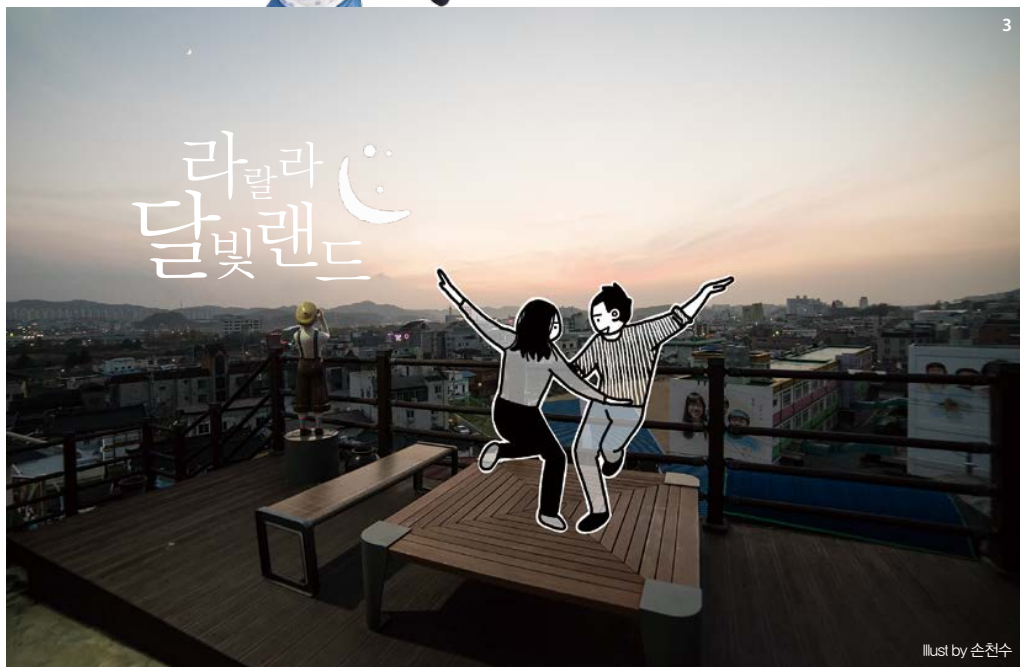
안동 동부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약 70여 명인 작은 학교인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꽤 많다고 했다. 그래도 어른들보다 더 어른스럽게 서로를 위해 주는 따뜻한 마음의 아이들이라,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도 했다.

그림애문화마을은 2018년부터 ‘마을, 학교를 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안경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안경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겐 따뜻한 품을 선물하는 등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들이다.

전망대에 올라 조용히 마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달빛이 비치는 마을의 잔잔한 아름다움에 빠져 조금 가라앉았던 기분이 어느새 열어지고 가슴이 다시금 쿵닥거리기 시작한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조용한 밤, 내 앞엔 화려한 무대(정자)가 놓여 있었다. 온전히 나를 위한 무대 같았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들썩이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대 위로 뛰어올라 마치 영화 <라라랜드>의 주인공처럼 빛나는 달빛 아래서 춤을 추었다. 참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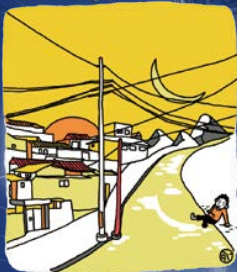


1 안동 동부초등학교 2 "사진 찍을 사람!!" 이란 외침에 "저요! 저요!" 밝고 명랑하게 뛰어오던 안동 동부초등학교 학생들 3 마을 전망대에 설치된 정자



# 달피는 꽃동네

달빛에 물든 나의 모습



## 서서히 번져 가는 달빛

버려진 지 한참 된 폐가 사이에서 화분을 가꾸시는 어르신에게 화분이 참 많네요. 예뻐요. 라고 말을 건넸다.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어르신의 인생사. 30여 분을 제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사람으로 인해 복잡하고 피곤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언제나 사람이라고.

달빛 가득한 그림애문화마을은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하지만 달빛이 그리하지 않은가. 쉬 온도를 높이지는 못한다. 마을도 그러하다. 할 일은 많은데,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조금씩 미뤄지기도 하고 지역 자체가 고령화되다 보니, 타 지역에서 활발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해 와도 여전히 젊은이들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마을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외부 인력이라도 함께하고 싶지만 지역의 특성상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터를 잡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애문화마을은 오늘보다 더 환한 내일을 그려보게 한다. 따뜻한 달빛 사람들이 여기 있으므로.

## 달빛에 물든 나의 모습

마을을 떠나기 전 좋아하게 된 장소들 중 하나인 '하늘계단(충충이 예쁘게 쌓여져 있는 언덕길의 모습을 보고 맘대로 지은 이름)'으로 향한다. '하늘계단'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종이와 펜을 꺼내 선을 긋기 시작했다. 속속 마음 가는 대로 그리다 보니 제법 달았다. 좋은 곳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나만의 방법. 사진보다 그림이다. 이 한 장의 그림과 함께 이곳 그림애문화마을은 오랜 시간 내 가슴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달동네가 아닌, 달빛동네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열린 결말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10년 뒤 그림애문화마을은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마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있기에. ☺



1 마을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하늘계단' 스케치 2 그림애 문화 마을의 랜드마크, 달 조형물



## 신세동 그림애문화마을

**사업명** 달피는 꽃동네, 안동시 신세동

**사업내용** 마을이야기 발굴, 마을 보수, 가든파티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협의를체를 구성하고, 마을장터에서 마을 공예동아리에서 만든 공예품 판매, 점빵 운영 등으로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수익 창출을 위한 구조를 마련함. 또한 마을 인구 유입 및 청년활동가 양성으로 마을 활성화에 기여함.

**프로그램** 주민 역량 강화 활동, 공예 동아리 운영, 마을 보수, 마을책 제작, 세시풍속, 가든파티, 마을장터 운영 등

**수행기간** 2016~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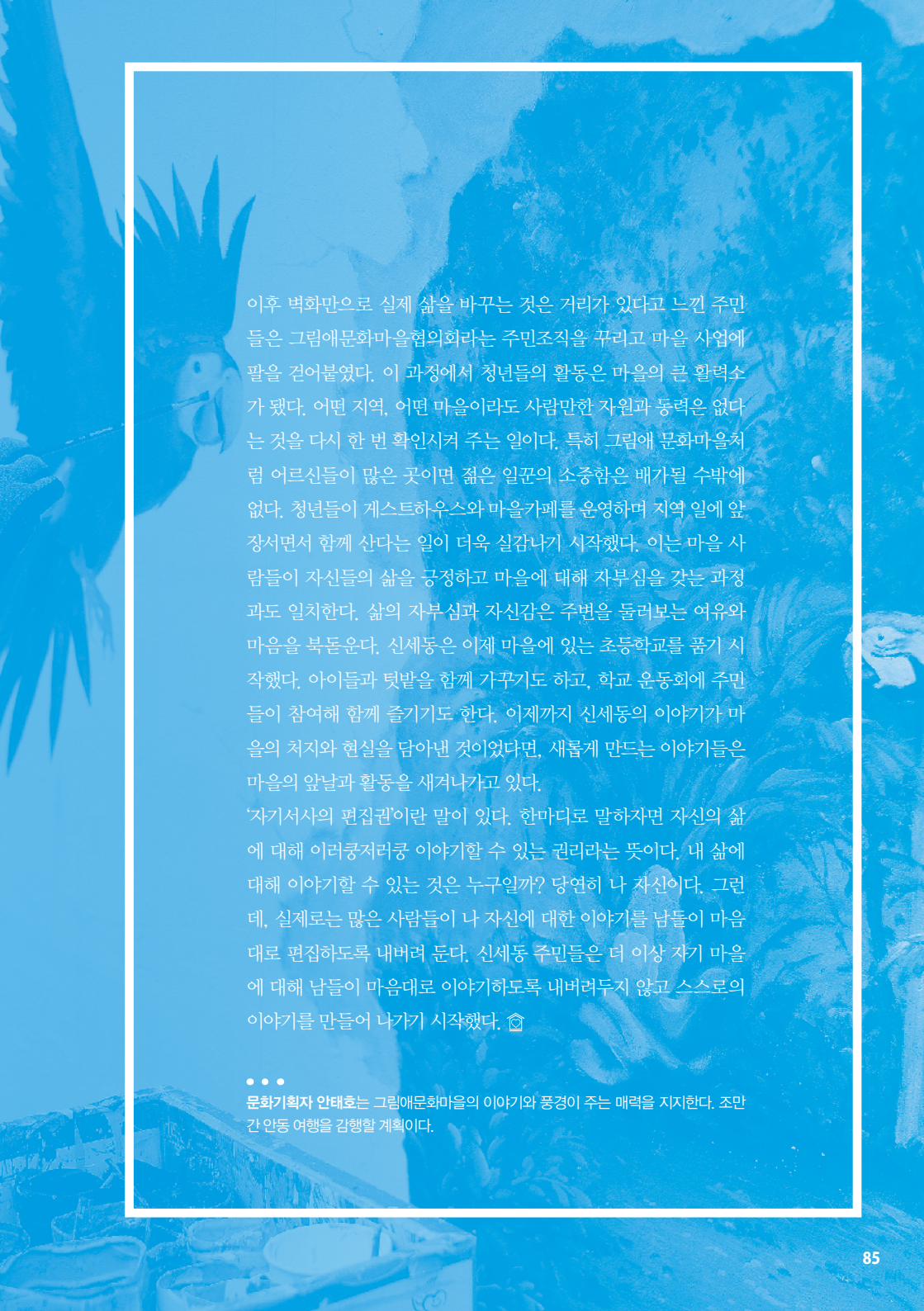
# 이야기로 변화를 일구다

글 안태호

그림애문화마을을 특징짓는 것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이 외부와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외부와의 성공적인 소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연결되었다. 장터의 성공, 공방의 활성화, 점빵과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그간 마을에서 진행해 온 활동들을 나열해 보자면 마을 사람들이 활동에 재미를 붙여온 과정들을 하나씩 복기하는 기분이다.

마을이름인 신세동을 주민들은 원래 이름의 유래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들이 신세를 지고 가는 동네'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실제로는 새 절이 있었다고 해서 신세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객관을 넘어선 자리에 주민들의 진실이 있는 법이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삶은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외딴 마을의 지형을 뚫기라도 하듯 가파르기만 했다.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마을 이름의 연원을 입말로 유추해 온 것은 건조한 사실 이상의 가치와 힘을 가진다. 마을은 고립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외부와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었다. 신세동에 산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곤 했다. 마을 바깥에서도 낙후된 동네라는 낙인을 애써 지우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에 벽화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뜻을 모아 함께 활동을 도모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해 들어온 벽화는 마을에 관광객을 불러들이면서 주민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개로 작동했다.



이후 벽화만으로 실제 삶을 바꾸는 것은 거리가 있다고 느낀 주민들은 그림애문화마을협의회라는 주민조직을 꾸리고 마을 사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활동은 마을의 큰 활력소가 됐다. 어떤 지역, 어떤 마을이라도 사람만한 자원과 동력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특히 그림애 문화마을처럼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면 젊은 일꾼의 소중함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게스트하우스와 마을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일에 앞장서면서 함께 산다는 일이 더욱 실감나기 시작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긍정하고 마을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과정과도 일치한다. 삶의 자부심과 자신감은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와 마음을 북돋운다. 신세동은 이제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를 품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텃밭을 함께 가꾸기도 하고, 학교 운동회에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즐기기도 한다. 이제까지 신세동의 이야기가 마을의 처지와 현실을 담아낸 것이었다면, 새롭게 만드는 이야기들은 마을의 앞날과 활동을 새겨나가고 있다.

‘자기서사의 편집권’이란 말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의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다. 내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 당연히 나 자신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이 마음대로 편집하도록 내버려 둔다. 신세동 주민들은 더 이상 자기 마을에 대해 남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

● ● ●

문화기획자 안태호는 그림애문화마을의 이야기와 풍경이 주는 매력을 지지한다. 조만간 안동 여행을 감행할 계획이다.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 하얀 마음이 일렁이는 그 곳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은  
흘러진 마음을 모았고,  
따스한 햇살은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을  
조심스레 열어젖혔다.

글 · 사진 김정흠

---

담장 위에 앉은 고양이가 오가는 이들을 관찰한다. 여행자들의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가 싶더니, 그중 한 명 앞에 다가가 애교를 부린다. 여전히 뚱한 표정이지만 모여든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넘나들기도, 심지어 구경하는 이들 중 하나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내어주기까지 한다. 까르르 하고 터지는 웃음. 여기저기서 두어 마리의 고양이가 더 나오더니, 골목길은 이내 고양이들의 놀이터로 변하고야 만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여행자들의 발걸음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

김정흠은 여행작가다. 부산 흰여울문화마을에 머무는 동안 부산의 따스한 인심을 느끼고는 예정된 시간보다 이틀이나 더 놀러앉았다. 4박5일간 마을을 여행하듯, 일상을 살아가듯 천천히 지낸 시간이 여전히 그림다.

# 파도도 쉬어가는 흰여울

절벽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골목길과 다닥다닥 모인 집. 담장 너머로는 탁 트인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위로는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는 찰나의 햇빛이 반짝인다. 수십 척의 크고 작은 배들은 웅기충기 모인 채 일광욕을 즐기고, 그 뒤 수평선 끝자락에서는 몇 개의 섬이 어슴푸레하게나마 존재감을 알린다. 반대쪽 풍경은 정반대다. 고층빌딩 여럿과 거대한 다리, 포구에 일렬로 정렬해 있는 선박들, 도시를 품은 산비탈을 따라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는 마을의 모습까지도 한눈에 들어온다. 부산이 아니고서야 볼 수 없는 풍경이 사방에 가득하다. 조선 시대까지는 그림자마저 끊어낼 정도로 빠른 말이 있었다고 하여 절영도라는 이름이었고, 그 이후에는 바다 건너 송도와 닮았다 하여 두 번째 송도라는 뜻인 이(2)송도로 불렸던 곳. 그리고 지금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아름답기만 한 곳. 흰여울문화마을이다.



## Community Story

흰여울문화마을

86p



## Community Project

국밥데이

92p

흰여울점빵

94p

마을협동조합을 향하여

95p



## Community Tour

흰여울문화마을을 거닐며

98p



## Community Review

마을사업 개요

101p

칼럼

103p



부산광역시

📍 흰여울문화마을

##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1044-6 남포역 6번 출구에서 영도로 들어가는 버스 중 다수가 흰여울문화마을을 거친다. 내려야 할 곳은 ‘흰여울문화마을’ 정류장. 도로 아래 방향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바로 마을 곳곳으로 뻗어 나가는 미로의 시작점이다. 안내소는 마을 속 여딘가에 있다. 힌트는 영화 <변호인>이다.

🌐 [www.huinnyeoul.co.kr](http://www.huinnyeoul.co.kr)



내가 흰여울문화마을을 처음 찾았던 2010년은 아직 골목길이 조용했던 무렵이었다. 지인에게 묻고 물어 찾았던 그곳은 고요하고도 복잡한 골목길이 펼쳐진 마을이었다. 창 너머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이 골목을 따라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어떤 주민은 집 앞 평상에 앉아 바다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골목을 탐닉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바다였고, 총계만 100여 개가 넘는다는 계단이 해안과 마을을 잇고 있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흰여울문화마을에 갔다. 어떤 점에 홀렸는지는 모르겠다. 절벽 아래에 조성된 절영해안산책로를 따라 거닐었던 적도, 방파제에 걸터앉아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적도 있었다.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부산에 갈 때마다 틈만 생기면 기어코 흰여울문화마을을 찾아갔다. 갈 때마다 머무는 시간도 덩달아 늘었다. 그 사이에 이곳에서는 <변호인>을 비롯해 몇 편의 영화 촬영이 있었고, 인기 예능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의 방문도 있었다. 흰여울문화마을은 ‘부산의 산토리니’라는 별명과 함께 조금씩 알려졌다.

예전처럼 다시 흰여울문화마을이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지만, 마을 골목길 어귀에 못 보던 카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을 중간에 생겨난 것까지 합치면 몇 개가 더 있다고 했다. 낡디 낡은 담장은 꽤 예뻐졌다. 벽화가 그려져 있고, 화단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듯했다. 골목 구석구석 포토존도 눈에 띄었다. 이전까지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여행자들도 자주 마주쳤다. 이곳이 이제는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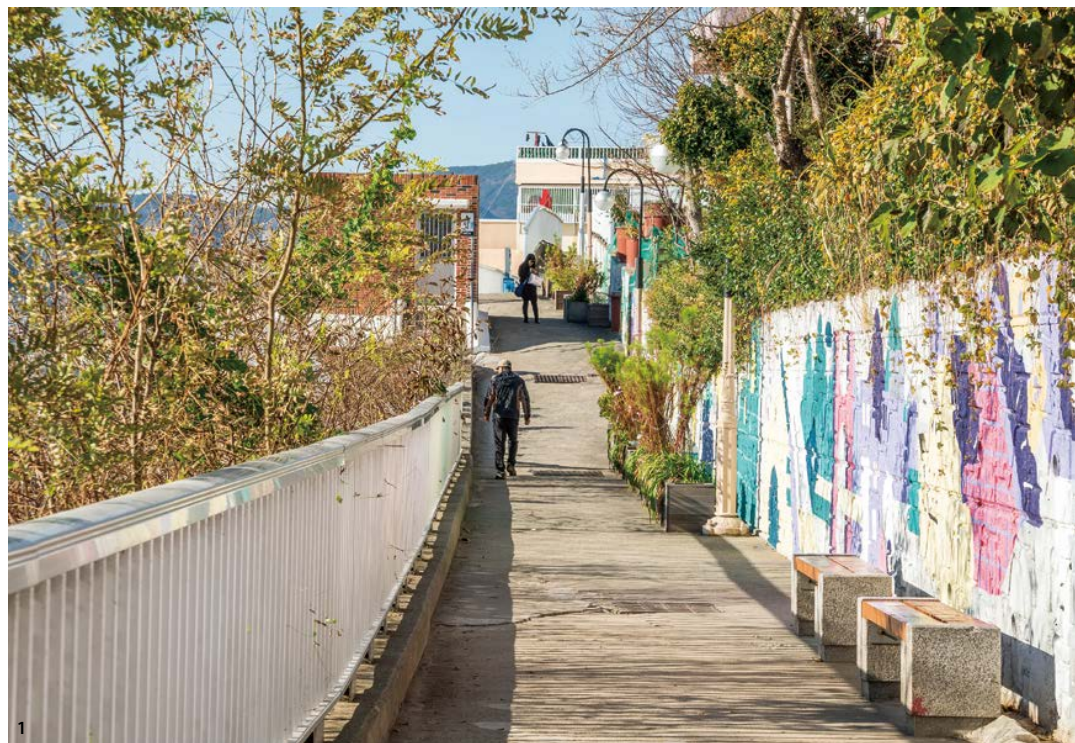
2





1 흰여울문화마을은 영화 <변호인> 촬영지로 유명해졌다. 벽면에 쓰인 글귀는 송강호의 명대사 2 해녀탈의실. 이 마을 앞바다에는 요즘도 물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집해오는 해녀가 있다 3 영화 <변호인> 촬영지를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흰여울 안내소에서 마을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 돌담 같은 늪 풀꽃의 차지다





“지금이야 많이 예뻐졌죠. 예전에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흰여울문화마을 공동체를 맡고 있는 김양미 대표가 아름답게만 보였던 흰여울문화마을의 이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6·25전쟁 피란민들의 이주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이곳에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그 모습이 여태껏 남아있다는 것. 이 마을의 90% 정도가 무허가 주택이며, 땅의 경계가 모호하여 재건축은 꿈도 못 꿔다는 말로 마을의 아픔을 설명했다. **관광객이 하나씩 이곳을 찾아올 무렵, 이 마을 주민들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던 셈이다.**

마을은 영화와 TV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찾아왔고, 마을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관광객의 등쌀에 떠밀리듯 떠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평범하게 살아가기에도 쉽지 않은 마을인데 관광객까지 들이닥치니 견디기 어려웠을 터. 부산광역시가 일종의 재개발 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마을 정비를 지원할 때까지 인고의 시간은 계속되었다. “날고 불편한 골목 일색이었던 곳이지만, 바다를 바라보고 선 절벽 위 마을은 분명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꽤 괜찮은 사업 대상지였던 것이지요. 여러 공공기관이 저희 마을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에게는 기회였던 겁니다.” 김양미 대표의 말이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고민했다. **마을로 흘러들어오는 지원 사업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공동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밖에도 마을 내외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다. 몇몇 주민들이 자치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영도문화원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시작이었다.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이들과 새로이 이사를 온 이들과 여러 생각을 품은 이들이 모였다.

1 이 길은 예전에 숲터널이었다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2 골목길을 거닐고 있을 때면 문득 은은한 향이 느껴지기도 한다. 정체는 마을에서 키우는 로즈메리다 3 이 마을에 꼬막이 있나 싶었는데, 아니다. 한 미디어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굳어져 계단의 이름이 되었다



## “국수 함 끼려 무까?”

공동체가 생기고 난 뒤로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터져 나올 무렵이었다. 사람들이 모여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의논을 하고 있던 찰나. 한 가지 의견이 사람들의 마음을 간질였다. “사람들 모아서 국수 함 끼려 무까(국수 한 번 끓여 먹을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을 주민들을 모으기에는 좋을 법했다. 집에만 계시는 마을 어르신들을 밖으로 불러내기에도 그 핑계가 괜찮았다. 소박하기 그지없어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국수라는 메뉴를 고른 것은 단순했다. 쉽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어서. 그렇게 국수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쳤다.

“할매들 다 나왔네!” 작은 마을이어도 다 같이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던 지난날들이었다. 몇몇 친한 이웃을 빼고는 그저 오가며 인사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국수 한 그릇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일 줄이야. 감회가 남달랐다. 얼굴을 마주하고 도란도란 나눌 수 있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이전에는 미처 몰랐다. 행사를 마치고 난 뒤, ‘정기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수보다는 국밥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여름에는 국수, 겨울에는 국밥을 하는 쪽으로도 생각해 보자.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다.

‘국밥데이’는 그렇게 탄생했다. 마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낸 의견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 돼지국밥으로 하는 게 어떨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만들어내기 힘든 메뉴라면 ‘국밥데이’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이 우세했다. 시락국밥(시래기국밥)을 메뉴로 정했다. 결과는 성공. 행사 때면 국밥 한 그릇 맛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오는 것은 물론, 큰 냄비를 들고나오는 이들도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맛있는 뜻이었다.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기꺼이 한 그릇씩 내어주는 것 또한 당연했다. 자연스레 마을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어 가고 있었다. 지금도 1년에 서너 번, 때가 되면 자연스레 이야기가 나온다. “국밥데이 함 할 때 안 됐나?”





2



3

1 이제 국밥데이는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마을 행사가 되었다  
2 빨랫줄에 외로이 내걸린 빨래집게는 바람이 불 때마다 빙그르르 돈다. 3관광지로 알려진 곳이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삶의 터전이다



## 쌈짓돈 모아 점빵과 민박을

국밥데이를 성공시킨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함께 하면 재미있을 만한 것들이 떠올랐다. 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기도 하니,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것을 만들어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일곱 명이 헤쳐 모였다. 흰여울문화마을 한가운데에 작지만 썩 괜찮은 공간을 구했다. 한 명이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모으면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다. 흰여울점빵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차렸다. 커피 등 음료를 기본으로 하고 라면과 샌드위치 등의 메뉴를 개발해 내놓았다. 최근 흰여울문화마을을 찾는 이들에게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점빵이다.

민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이들도 뭉쳤다. 마찬가지로 돈을 모아 민박집을 열었다. 흰여울마을민박이 그곳이다. 흰여울문화마을이 자랑하는 풍경을 벗 삼아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처음엔 공간을 나누어 두어 팀을 받았다가, 이제는 하루에 한 팀만을 받는다고, 마을의 고즈넉한 밤을 일행들과 함께 고스란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흰여울점빵과 흰여울마을민박 두 곳 모두 공동체 사람들이 스스로 출자해 만들어 낸, 일종의 기초적인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흰여울점빵은 마을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최고의 핫플레이스다. 라면을 꼭 맛볼 것

## 화초도 우물도, 흰여울문화 마을답게

그러는 와중에 영도문화원, 영도구청, 부산광역시청 등 기관이 주도하는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대부분 마을을 정돈하고, 주민들의 복지와 자립을 신장 쓰는 부류의 것이었다. 그러나 어딘가 이상했다. 마을의 정체성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만 있었던 탓이었다.

두레박 샘을 복원한 공사가 대표적이었다. 옛 모습과 전혀 다른 형태로 우물을 복원하고 있는 것을 공동체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다. 공사를 멈춰 세웠다. 옛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복원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골목길의 화단을 정비할 때도 마을 공동체는 의견을 개진했다. 초화를 심으면 바람에 금세 쓰러질 것이 뻔하니, 그보다는 바람에 강한 식물을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곳곳에서 허브의 한 종류인 로즈메리를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다. 그밖에도 흰여울문화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업에 공동체가 참여했다. 마을로 들어오는 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마을의 질서를 해치는 여러 일에도 공동체가 나섰다. 좁은 곳에서 벽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들로서는 서로를 위해 약간은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 위해 늘 노력했고, 함께 의논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마을의 인기가 높아지며 새롭게 들어온 이들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도 공동체가 정리에 나섰다. 공동체가 마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내고 있는 셈이었다.



# 묵묵히 소매를 건는 사람들

김양미 대표는 마을 주민들의 끊임없는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기에 흰여울문화마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공동체 내에 들어 오지는 않았지만, 마을 내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 주는 이들도 큰 힘이 되어 준다. “한 번은 마을 차원에서 대청소를 하자고 했는데 대꾸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다들 바빠거나 귀찮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청소 당일이 되니 사람들이 다들 빗자루를 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다들 마을을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죠, 고마웠어요.” 마을에서 고추장을 담그거나 하는 등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들 소매를 걷고 나서 준다는 이야기로 곁들였다. 외부에서 들어온 카페, 식당 주인들도 조금씩 후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그들이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도,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단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디뎌 주는 것도 그렇고 말이다.

“마을에 공동체가 생긴 게 올해로 6년 차예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고 해도 좋겠네요.” 마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녀는 마을 공동체를 초등학생에 빚다어 이야기했다. “아마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시기를 중학생 2학년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여곡절도 많을 겁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잘 보듬어서 키워야 하겠지요.” 올해로 마을공동체 회장 임기가 끝난다는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노라고 다짐했다. 3년 후의 흰여울문화마을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1 생문공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마을 주민들의 복지였다.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한 얼굴 마사지 강좌도 그중 하나 2 공동체가 생긴 이후, 마을 주민들은 수시로 여러 안건을 두고 회의를 한다 3 집 앞에 꽃을 심고 화분을 두는 것만으로도 마을 분위기가 한층 화사해졌다 4 마을 구석 구석 틈이 보이는 곳마다 화분을 놓아둔 모습이 귀엽다



## 흰여울문화마을을 거닐며

with 마을해설사 반야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을이 조금은 달라 보였다. 마냥 아름답지만 한 곳으로 생각했지만, 이면에는 힘겨운 이야기들이 스며들어 있기도 했다. 마을을 천천히 더 음미해 보겠노라 다짐했다. 마을해설사 반야화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영도문화원에서 마을 해설 교육을 받고, 주말마다 방문객을 위해 길을 나서는 마을 주민 중 한 명이었다. 마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반야화 해설사님을 만나기로 한 안내소를 찾아갔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조금은 어색했다. 지나가던 관광객들이라면 한 번씩은 이곳에 들르는 듯했다. “여기 안쪽에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들렀다 가세요. 영화 <변호인> 촬영지입니다!**” 안내소에 있는 주민이 관광객의 안내를 돕고 있었다. 직접 사진을 찍어주기도, 주변을 정리해주기도 했다. 방 안쪽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며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이었다.

안내소 근무자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틈을 타서 마을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여기는 원래 다섯 가구가 살던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자 그는 신이 났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흰여울문화마을에는 이곳처럼 작은 집이 많아요. 옆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마당은 물론, 화장실도 공유했답니다. 화장실이 있는 집 자체가 흔치 않기도 했지요.”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던 관광객들이 설명을 들으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안내소를 떠나며 한쪽에 진열된 기념품 몇 개를 골라 구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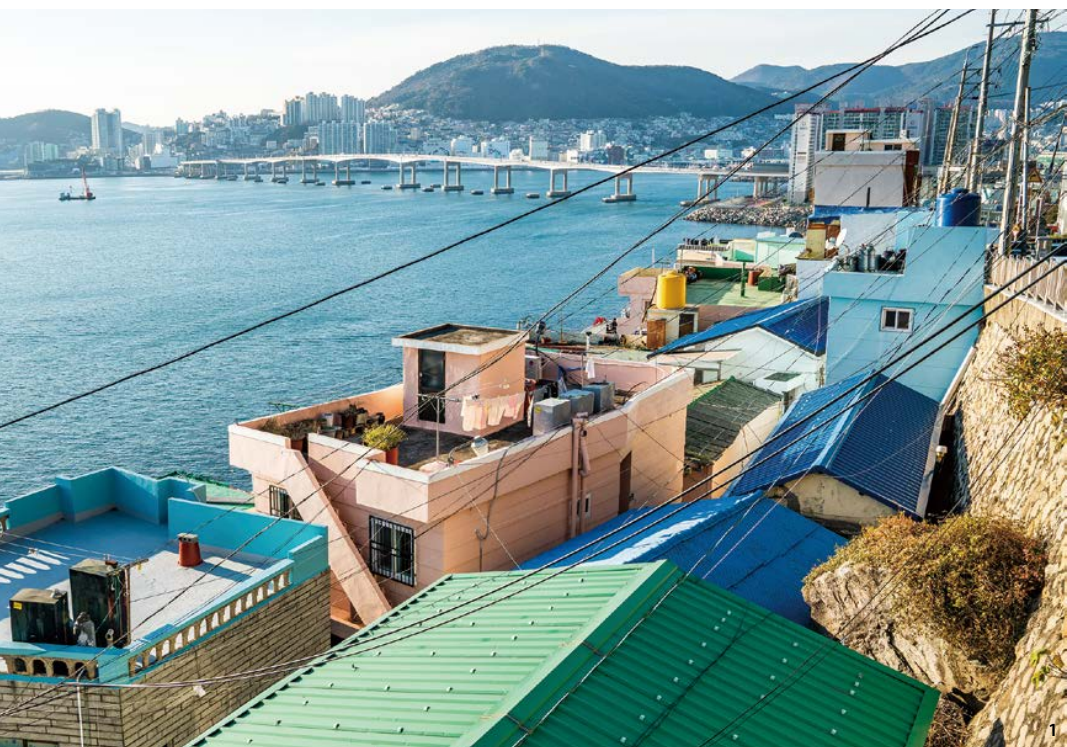
“공동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안내소를 지키고 있어요.” 반야화씨가 이야기했다. 단순히 영화 촬영지지만 알려졌던 곳인데, 마을에 사는 작가 중 한 명이 공간을 지금의 모습처럼 꾸며 주었다. 덕분에 SNS에서 유명한 포토존이 되었다고. 관광객들은 자연스레 안내소에 방문하고, 마을 지도를 얻거나 기념품을 구매해 가는 동선이 완성된 것이다.

반야화 마을해설사와 함께 마을 골목길을 거닐었다. 마을 입구 격인 만머리계단부터 이승도전망대까지. 되도록 천천히 거닐기로 했다.



1 영도 한쪽에 자리한 흰여울문화마을과 바다 건너 부산항 일대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2 강아지가 그려진 벽화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1



2



현여울문화마을로 들어서는 계단.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옛날에 샘이 있던 자리. 마을 아래 해변에서 해산물을 팔고 있는 해녀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 등을 들었다. 꼬막계단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집이 너무 작아 ‘꼬마집’이라고 부르던 것이 방송을 통해 와전되었던 것이라는 일화를 꺼내 한참을 웃기도 했다. 새파란 페인트로 벽면을 뒤덮은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현여울점빵의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이야기했다. 마을 꼬트머리인 이송도전망대에 이르러서는 솔깃할 만한 이야기도 들었다. “매년 마지막 날, 새해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면 묘박지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일제히 뱃고동을 울려요. 그 풍경은 정말이지 장관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새해를 축하하는 공연을 하는 것만 같아요.” 12월 31일. 어쩌면 나는 이 자리에 서서 그 연주를 듣고 있지 않을까.

감사를 담은 인사를 한 뒤, 그녀를 돌려보내고는 전망대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잔잔한 바람은 아직 가을의 끝을 부여잡고 있는 듯했다. 마을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의 여유도, 방금 전에 들었던 현여울점빵 라면의 맛을 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서쪽으로 저무는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어두워진 후에는 마을 화가가 운영한다는 펍에 들르기도 했다. 부산의 야경을 곁에 두고 시원한 생맥주를 맛보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으니까.

현여울문화마을을 떠나는 날, 다시 안내소에 갔다. 마침 반야화 해설사님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가보겠다며 인사를 건넸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차라도 한잔 해야제”라며 음료를 내려주는 그녀에게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말했다. “에이, 그래도 먼 길 가는데 이거 하나 목코 가래이.” 마지막까지도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스함을 당분간은 잊지 못할 것 같다. 마을에 큰 빔을 하나 지고 가는 느낌이다. 또 오겠다는 약속, 언젠가 지킬 수 있기를. ☺



## 흰여울문화마을

**사업명** 흰여울마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내용** 마을 내 입주 작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게스트하우스와 점빵 운영 등 관광객의 유입 등을 고려한 사업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협동 조합을 설립해 공동체를 강화해 나감.

**프로그램** 주민 역량 강화 활동, 마을학교(바리스타, 수공예, 합창, 영화제작, 골목극장), 마을잔치, 마을 해설사 양성, 게스트하우스 · 점빵 운영 등

**수행기간** 2014~2016년



# 협동의 힘으로 지혜롭게, 단단하게!

글 안태호

현여울문화마을은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좁은 골목은 항상 방문자들로 북적인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촌으로 형성되어 바닷가 벼랑 끝에 좁다란 집들이 몰려 있는 탓에 마을 골목에 서 있노라면 눈 속으로 바다풍경이 시원하게 담긴다. 그런데, 마을이 각종 영화와 매체에 등장하고 찾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빈발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에 대응하는 단위가 필요해지기도 했다. 마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공공영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공동체는 출발했다. 마침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 사업이 훌륭한 매개가 되어 주었다.

길지 않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길러진 것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제 일을 벌이는 힘이다. 주민들은 생문공 사업의 성과 중에서도 ‘국밥데이’를 손에 꼽는다.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 시래기국밥을 나눠먹으며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손도손한 공동체의 힘이 부쩍 길러지는 기분이었다. 국밥데이의 성공에 힘입어 공동체는 마을 일을 더 기운차게 벌일 수 있었다. 마을 중간에 들어선 점빵과 게스트하우스는 그 자신감의 산물이다.

개인으로서의 업무를 내기 어려웠던 일들이 여럿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배웠다. 마을 곳곳에는 동네 복판에 세워지는 7층짜리 교회 신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단이 붙어 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작은 집들 사이에 그런 커다란 건물이 들어서면 당장 마을 경관을 해치고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공동체 활동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그냥 개별적으로 투덜대고, 술자리 방담으로만 남았을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마을공동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고 마을의 일에 팔을 걷어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기운이 축적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교회도 역시 마을의 일원이었던 터, 공동체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층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건축을 진행 중이다. 새롭게 입주하는 카페 등에서 주민공동체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이들을 선뜻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자칫 폐쇄적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우려가 들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이름을 내세워 손쉽게 사업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협동의 힘을 통해 마을은 더 지혜롭게, 더 단단하게 진화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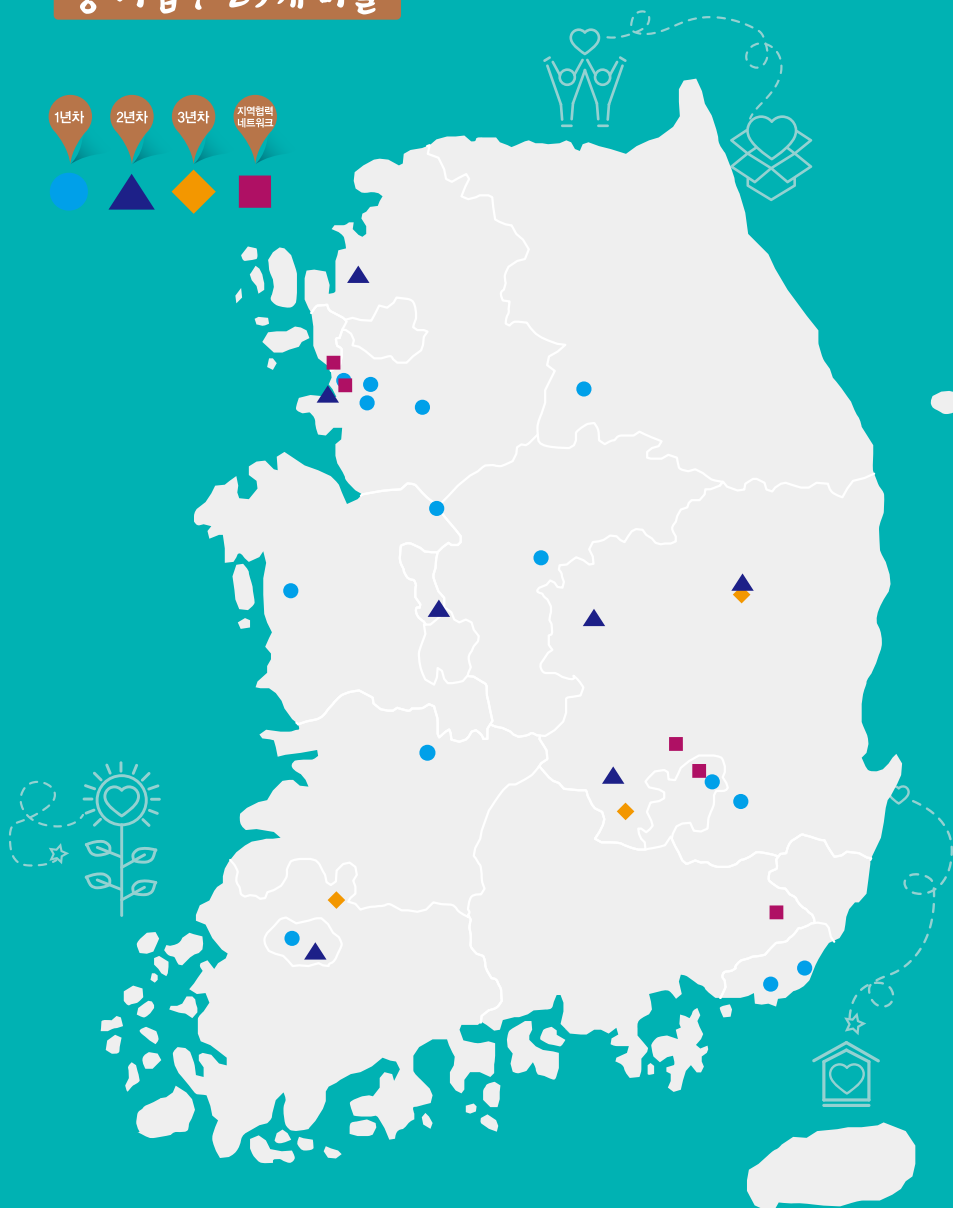
● ● ●

**문화기획자 안태호**는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다시 흰여울문화마을의 바다가 보고 싶다.

# 2018

## 전국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참여마을

총 사업수 29개 마을



## 2018년도 (29개)

지역	단체명	사업명
경기 안산	문화공간섬자리	천일의 동행, 잠들어 있던 성을 깨우다
전남 담양	담양문화원	기억으로 재생하는 천변리 생활문화공동체
경북 고령	참좋은문화공동체	함께하는 이웃, 함께하는 마을 사랑
경북 안동	그림애문화마을협의회	달피는 꽃동네, 안동시 신세동
대구 북구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대학가, 커뮤니티 문화로 만들어 가는 “마을은 대학이다.”
인천 남구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송고한, 의미있는 동행 [내 삶속 평화마을 만들기]
세종시	예술창작소 이음	2018년 새 살터 신흥드림
경기 파주	한울마을4단지관리사무소/무지개 도서관	한울사랑(爰) 행복마을
경북 성주	금수문화예술마을	문화가 바람을 타고 마을에 깃들다
경북 상주	함창달빛창작소	활기찬 마을 공동체 만들기
경북 안동	범석골주민협의회/(사)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	생활문화로 하나되는 범석골 이야기
광주 광산	선운휴먼시아한마을작은도서관	함께 만들어 가요! 선운행복마을!
부산 동구	이바구캠프	마을탐미
부산 수영	(주)무조와곰솔	사람을 잇다 - 수영성 이음터
광주 북구	(사)광주시민방송	영화로 만나고 라디오로 소통하는 간헐골 마을살이
경기 안산	온새미로	천년의 역사와 생태를 지키는 안산동 온새미로
경기 화성	더불어숲 페어라이프 센터	살을 위한 학교, 마을
경기 군포	산화랑	대야미공감마을
강원 원주	P-OLA	동진골 공유마을 프로젝트
충북 괴산	삼거리	신기리 손발목
충남 홍성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청년 농부, 마을에 살을 짓다
충남 천안	아름나운동본부	역사의 숨결로 배우고 소통하는, 신명나는 아우내
전북 완주	수상한 공동체	도시와 농촌, 아파트와 마을을 잇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경북 경산	예술마을사람들	경산 예술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대구 북구	반디협동조합	온고지신 프로젝트 : 신구조합 마을공동체
경기 안산	감골주민회	따로 또 같이, 마침내 숲을 이루다
경기 용인	협동조합 참좋은 수다	북돋움
경북 칠곡	부영새마을작은도서관	마카가치
경남 양산	대석물인뜰마을	상복 주민이 만드는 생활문화공동체 ‘행복발전소’

## 문화공간 섬자리



### 사업명

천일의 동행, 잠들어 있던 섬을 깨우다      지역 경기 안산

**사업내용** 대부도를 활동 기반으로 하는 '문화공간섬자리'는 침체되어 있는 마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하여 청년, 이주여성의 주민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각 커뮤니티의 활동을 묶어내는 마을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하고 특산품(막걸리) 상품화를 추진하여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청년 살롱, 마을 소풍, 마을 축제를 진행하면서 주민참여와 주민역량 강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담양문화원



### 사업명

기억으로 재생하는      지역 전남 담양  
천변리 생활문화공동체

**사업내용** 담양문화원은 천변마을 마을풍물 복원과 오일장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천변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변마을 마을 공방 활동을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마을의 활력과 주민 단합을 도모하고 마을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 카페 운영을 통하여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참좋은문화공동체



### 사업명

함께하는 이웃, 함께하는 마을 사랑      지역 경북 고령

**사업내용** 다산면 다산주공아파트 내 주민들이 만든 작은 마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 공동체로 발전했으며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동아리활동과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등 문화를 통한 자생적 주민 교류 활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예 동아리, 마을책 제작, 세시 풍속, 가든 파티, 마을 장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림애문화마을협의회



### 사업명

달피는 꽃동네, 안동시 신세동

지역 경북 안동

**사업내용** 안동 시내 작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협의체입니다. 마을 이야기를 발굴하고, 빈집, 오래된 벽 등 마을 보수와 환경 정비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공예활동의 공예품을 장터에서 판매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점빵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과 수익 창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내 인구 유입과 청년활동가 양성으로 마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면서 마을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 사업명

대학가, 커뮤니티 문화로 만들어 가는  
“마을은 대학이다”

지역 대구 북구

**사업내용**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서문 앞의 주민과 지역 청년활동가 조성된 마을 공동체로 지역 이야기 발굴과 마을 골목 꾸미기, 골목 학교 등을 통해 골목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 사업명

송고한, 의미있는 동행  
[내 삶속 평화마을 만들기]

지역 인천 남구

**사업내용** 인천 남구 송의평화시장 입주 작가들과 함께 상인, 주민, 예술가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시장 이야기를 담은 음반 제작과 시장 상품 개발을 통해 주민 주도의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밥상공동체, 도시락 나눔, 노래 동아리 활동, 축제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예술창작소 이음



### 사업명

2018년 새 삶터 신흥드림

지역 세종시

**사업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신흥리에 마을축제조직위원회를 조직하고 민요, 전래놀이, 풍물, 어르신 이야기꾼 활동 등 놀이 봉사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마을 인문자원 조사를 진행하며 마을의 역사를 꾸려내고 있으며 마을잔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 무지개 도서관



### 사업명

한울사랑(愛) 행복마을

지역 경기 파주시

**사업내용** 한울마을 아파트 단지 중심의 마을 북카페, 마을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세대별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마을 통합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미술, 우쿨렐레, 쿼트, 건강교실, 마을 놀이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 강사 양성을 통해 공동체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금수문화예술마을

### 사업명

문화가 바람을 타고 마을에 깃들다

지역 경북 성주군



**사업내용** 경북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공동체로서 일상의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의 전통행사 복원 및 마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함창달빛창작소



### 사업명

### 활기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역 경북 상주시

**사업내용** 상주 함창읍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조성된 공동체로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와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 동아리, 마을 카페 등으로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범석골 주민협의회/ (사)지역사회적경제 허브센터



### 사업명

### 생활문화로 하나되는 범석골이야기

지역 경북 안동시

**사업내용** 안동시 안막동 범석골에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로 주민역량 강화 활동과 함께 마을 현안 발굴하고 분석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결속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동 김장 담그기, 노래교실, 요리교실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선운휴먼시아한마을 작은도서관



### 사업명

### 함께 만들어 가요! 선운 행복마을!

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업내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종류 동아리를 발굴하여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주민 간 모임을 활성화하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아파트 광장을 공동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밥상 모임, 생활문화축제, 배움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바구캠프



### 사업명

### 마을 탐미

지역 부산광역시 동구

**사업내용**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을 중심으로 마을의 자원과 이야기를 담아낸 월간 요리북을 제작하고 마을 거점 공간을 활용한 마을 반상회, 공동 밥상 등 음식, 요리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책 발간과 마을 축제를 기획, 운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푸조와 곶술



### 사업명

### 사람을 잇다 - 수영성 이음터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업내용** 부산 수영구 수영성문화마을을 활동 무대로 하며 수영성 마을박물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다방과 마을전시관, 마을 사랑방이 마을박물관에 자리하고 있으며, 세대 간 교류하는 마을쉼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잡지를 발행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사)광주시민방송



### 사업명

### 영화로 만나고 라디오로 소통하는 간뎃골 마을살이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사업내용** 광주 북구 중흥동 간뎃골 마을을 활동 거점으로 하여 마을 청소년들이 마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마을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문화예술 미디어 활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일상생활문화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을 PD 양성, 마을 다큐멘터리 제작, 마을 라디오 방송, 마을 영화제 활동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온새미로



### 사업명

천년의 역사와 생태를 지키는  
안산동 온새미로

지역 경기도 안산시

**사업내용** 옛 안산의 역사 문화자원과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역사성과 가치를 살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 강사 발굴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을 생태 및 역사 탐방, 마을학교, 플리마켓 등 지역 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숲 페어라이프 센터



### 사업명

살을 위한 학교, 마을

지역 경기도 화성시

**사업내용** 봉담읍 페어라이프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삼의 예술학교, 마을인문학을 통해 불만과 필요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나가는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문화예술, 공간을 이어주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 공정여행, 밥상공동체와 집밥학교(공동육아), 플리마켓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산화랑



### 사업명

대야미공감마을

지역 경기도 군포시

**사업내용** 마을 동아리 및 자치모임을 중심으로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 형성된 괴리감을 좁히고, 협업을 통한 간담회와 마을축제, 마을학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목공과 마을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문화학교를 운영하며, 외지로 나가는 청년들을 위해 마을 안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밴드와 연극 등을 준비하는 청년 마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P-OLA



### 사업명

#### 동진골 공유마을 프로젝트

지역 강원도 원주시

**사업내용** 원주시 일산동 동진골 공유마을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상 놀이 발굴, 그림책 동아리 등 주민들이 모여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통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그림책과 건강을 주제로 한 동아리 운영, 마을축제 등을 개최하며, 활동 과정을 담은 결과 자료집을 제작합니다.

## 삼거리



### 사업명

#### 신기리 손발뭍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사업내용** 문광면 신기리 탑골마을 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의 쓰레기장 꾸미기, 페비닐 수거함 정리 등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마을잔치, 마을 그림책 제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오누이친환경 마을협동조합



### 사업명

#### 청년 농부, 마을에 삶을 짓다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사업내용** 홍성군 장곡면을 중심으로 귀농 귀촌인 및 청년들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마을과 농업을 바탕으로 한 마을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농촌형 문화예술 활동 발굴을 위해 팟캐스트 등의 콘텐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학교 배움터를 거점으로 상호부조와 상호 협력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아힘나운동본부



### 사업명

역사의 숨결로 배우고 소통하는,  
신명나는 아우내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사업내용** 천안 병천 지역의 왜곡되고 축소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아이들 기지단을 운영하여 병천의 이야기를 재발굴하고, 청년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 자서전과 마을신문 및 축제, 생활문화활동(천연염색, 목공, 바느질 등), 공동체 역량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상한 공동체



### 사업명

도시와 농촌, 아파트와 마을을 잇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역 전라북도 완주군

**사업내용** 완주군 이서면 예코르 3단지 아파트와 원용서 농촌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현안을 논하기 위해 자치 기구를 결성하여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공동체로 출발한 수상한 공동체는 책깨비 핼러윈 축제, 상상콘서트,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 완화 및 단지를 통합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 예술마을사람들



### 사업명

경산 예술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사업내용** 마을 예술가들이 모여 아동, 청소년, 노인, 가족, 여성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심리 프로그램과 커피숍, 갤러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 기획자 발굴을 통해 마을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예술가 활동 기반을 위한 예술마을을 형성하고, 신문 제작을 통해 마을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반디협동조합



#### 사업명

온고지신 프로젝트 :  
신구조화 마을 공동체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업내용** 대구 마을과 청년활동가 간의 유대관계를 높임으로써, 마을단위보다 넓은 '청년+주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년들의 마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과 마을 인터뷰, 라디오 방송, 영상 콘텐츠, 소셜 다이닝, 체험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 협동조합 참좋은수다



#### 사업명

북돋음

지역 경기도 용인시

**사업내용** 핸드메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참좋은수다'는 도농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생활예술가의 예술 활동 장소를 확보하고, 삶과 문화를 접목 시킨 생활예술 활동 및 지역사회 기여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역량강화 활동과 인문학 교육, 적정기술, 도시농부, 마을축제 등을 운영합니다.

### 감골주민회



#### 사업명

따로 또 같이  
마침내 숲을 이루다

지역 경기도 안산시

**사업내용**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가진 두 개의 마을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리더와 활동가 간의 역량 강화 활동과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단체 간 노하우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강사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 공동체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소식지를 제작하고, 마을 컨설팅, 활동가 워크숍, 목공, 축제,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영새마을작은도서관

### 사업명

마카가치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사업내용** 주민 주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및 주민 의견을 나누기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활동, 마을 지도 만들기 등을 통해 지역 위기 및 각 단체의 활동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한 연합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육, 선진지 견학, 마을 지도, 청소년 워크숍, 공연·염색·목공 등 문화예술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석물안뜰마을

### 사업명

상북 주민이 만드는  
생활문화공동체 '행복발전소'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사업내용** 지역 주민이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교육과 기존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뜰마을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마을 장터,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교육, 인문학 교육, 토론 활동, 문화예술 활동, 마을장터, 마을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09~2018 (10년)

## 전국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참여마을

총 사업수 144개 마을



2009 (5개)

2010 (6개)

2011 (16개)

2012 (10개)

2013 (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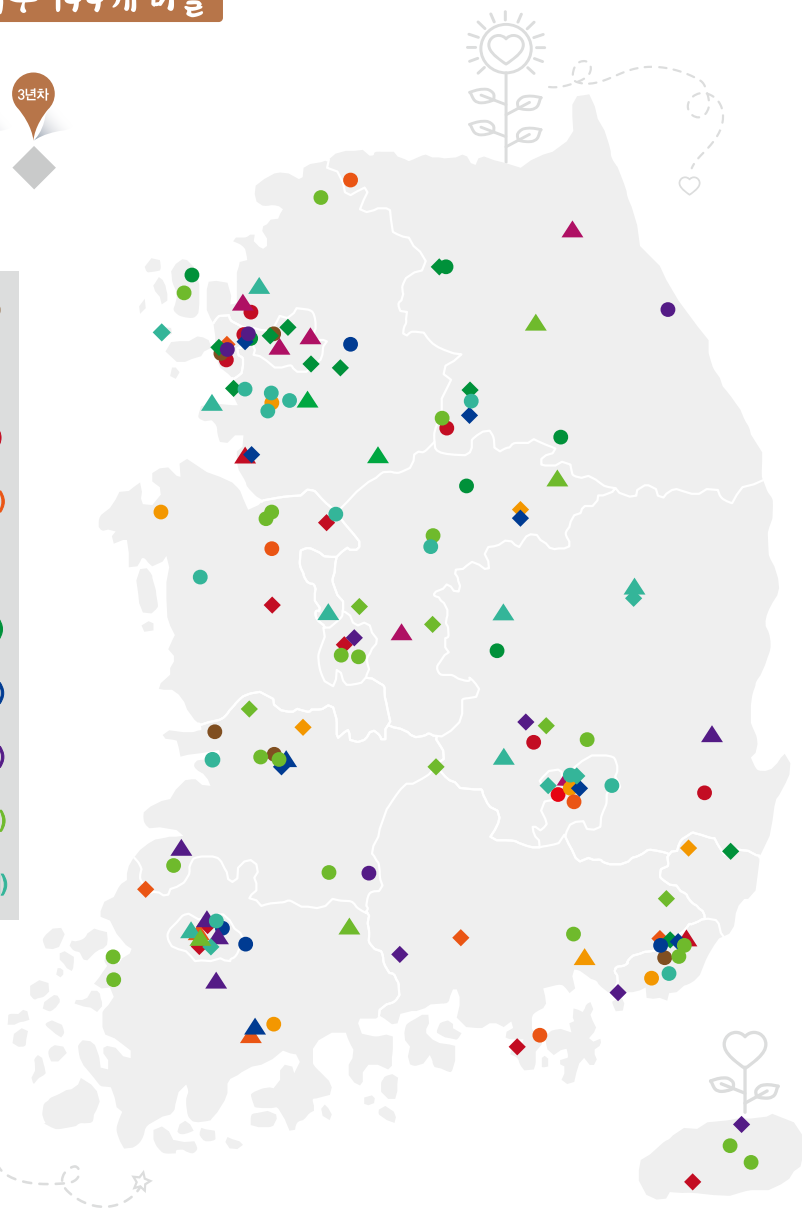
2014 (17개)

2015 (13개)

2016 (13개)

2017 (29개)

2018 (26개)



연도	지역	단체	사업명
2009	서울 마포	극단 만물주	이웃과 함께 문화 만들기
	부산 진구	청소년문화공동체 외	마을문화공동체 '마중물'
	인천 동구	스페이스 박	배다리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 '가갸호호(家加呼呼)'
	전북 진주	문화공간 힘	따오르는 제돌이밖 문이 열린다
	전북 고산	극단 용인무대	대명곡 '심심사' 도로 논을 걷다

2010	서울 중랑 중앙극원협회/극단 아루름	문화적 행복 프로젝트 - 행복비어리스
	서울 강서 보물나눔터	만나고, 우리 문화
	대구 달서 극단 봉화산	하나 되기 희망 문화프로젝트 - < Culture 이야기>
	경기 고양 공공미술프라자	한도마을 한어람사람들 이야기
	경기 인천 창시	영화가 있는 '냉장미술축제'
	충북 옥천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초록은 문화학교 0.1다스

[illegible]

2012	부산	문화도시세워주기	부산 문화도시를 준비는 끝났다
	대구	도시생태문화재단	생태 문화재단은 골목투쟁이다 (서로)
	인천	바람차 재래로 안착사업	영동읍, 영종도 마을을 꿈꾸다.
	전남	시(市)별을 위한 문화예술재단	The 소중함 문화 두드림
	전남	칠천문화원문화비전센터	한정희와 이웃사이의 DMZ 방문기
	충남	이안(VCA)/아사문화재단	창의성과 자아표현이 흐르는 충주과 도농지역마을
	충청	문화예술교육연구구구 사업과 삶	서로와 글씨 마을 만들기
	전남	전주YMCA	369의 이웃의 축제마을 전주군간
	전남	보성문화원	가마솥 마을을 살려 이야기
	전남	무등문화재단	서로마을을 그친

2013	본국 방문 (시애틀문화권 방문)	한청友好, 성립의 열매 맺음
	당국 방문 (주미대사관 방문)	내각중 위주교류사업 확정
	출신 출신 문화예술교육지원 출범	미주한국인 1만명 중 가구는 문화 사랑방 "소호마을 문화회관"
	구민 지원 사업출자문화관광정책	월 배고고 나야어 성장하는 글로벌 마을공동체
	문화 지원 (시애틀과 마을네트워크)	한청 6개 카카오톡 채널 개설
	출신 지원 (출신지원)	출신, 종중순간, 배는 춘천시 1점
	문화 지원 (문화지원)	미국 내는 들
	문화 지원 (문화지원)	생태문화으로 꽃피우는 삼기리 - 문화관광과 공작
	문화 지원 (문화지원)	문화지원으로 꽃피우는 삼기리 - 문화관광과 공작
	문화 지원 (문화지원)	문화지원으로 꽃피우는 삼기리 - 문화관광과 공작

[illegible]

2015	부신 북산	(사)아트무소비엔라	풍경작품 - 어미와 새 깃는 여섯남의아름다운공작품
부신 해태	희망·세상	시문학작품 우리들의 만남	
대구 수지	만해백미담은영향의	만해영화를 그려주게 생애를 프로그램	
경주 동구	(사)우리문화예술원	문학작품 따라오는 힘겨운 세상은 두터, 청, 흰, 등	
경주 양지	책가이드	이탈리스의 예술나눔	
부천시 부천로	부천로주인회(송태우이사장)	문학작품 송태우(부천로) 우리 마을 송태우	
경주 안식	강남주인회	남해의 물결의 공동체 '강남은 우리들의 고향'	
강원 화천	부천시서라벌마을	공생 - 마을을 누비는 주민들끼리 열심	
충청 제천	(사)다문화재단	꽃과 새의 아름다움 - 새의 향기	

연도	지역	대상기관	사업명
2015	전북 전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이 만드는 생활문화장터 "명하마을장터"
	전북 전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주민과 함께하는 '서학동 예술마을' 프로젝트
	전남 보성	보성문화원	도개마을, 목화마을 품고 달린다
	전남 화순	화순문화원	자세히 봄 - 세대공감 프로젝트

[illegible][illegible][illegible]

# 공동체적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생활의 공동체

안영노 | 안녕소사이어터 대표

## 생활이란 무엇인가

생활은 삶의 활력이다. 활기있는 하루하루 일상을 말한다. 그런 생애를 살 때 우리는 생명력 넘친다든지, 살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어떤 삶이 멋진 삶인가. 어떤 일상이 바람직한 생활을 하는 모습인가. 어떤 생활이 가치있는 인생을 만드는가. 본질에서 출발하자.

좋은 생활을 구성하는 것은 많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을 줄이고 자기충족감을 높이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행복지수가 높은 삶이랄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적 내상을 입고 치유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지구촌이 그러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러하다. 오죽하면 이민을 유발하는 나라라고들 하는가.

훌륭한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또 하나, 정서적 외로움을 줄이고 결속감을 가질 만한 친구와 가족, 그렇지 않더라도 유사가족과 의사공동체 등이 존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용기를 꺾지 않고 살아가게, 풍요로운 정서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 심리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대안가족, 대안공동체, 믿을 만한 동아리와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눌 동호회 친구들이다. 이런 정서적 연결망과 의미의 결사체, 맥락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사회는 자살이 적다.

다양성 안에서 원하는 준거집단에 소속되거나 동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과 우정을 나누기 쉽

거나, 정체성을 가질 만한 마을의 이웃과 동네주민들의 공동체가 있거나 할 경우, 자유로운 사생활과 병존 가능하고, 결속과 소속감을 가질 곳을 선택하면서 개인의 삶을 더욱 넉넉하게 누릴 수 있다. 개인과 사회적 연대는 흑백관계가 아니고 건강한 상승연관 아래 있어서, 개인주의적 삶이 성숙할수록 동호회에 성실하고 다양한 동아리를 누린다. 공동체 안의 삶이 탄력적일수록, 개인주의의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더 쉽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지향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런 세상을 제공해주어야 옳지 않은가 말이다.

##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가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은 생활이 거칠고 거무죽죽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도록 사람들이 해답을 찾기 때문이다.

왜 공동체인가. 함께 사는 삶이 덜 죽을 맛이기 때문이다. 서로 알고 돕는 삶이 더 살맛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의 흐름을 보라. 지난 5년을 지배한 문제는 포기와 좌절을 국가가 돌보지 못한 점이었고, 지난 10년을 지배한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없이 내몰린 약자를 포함하여 정신적 자살과 신체적 자살을 포함한 사회적 자살을 방조하는 문제였다. 지난 15년을 이어온 문제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자기계발을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고도의 경쟁에

---

자신을 내몰아도 해결되지 않고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양극화된 경제구조 속에서 포기와 좌절, 분노의 흉터를 얻은 마음의 흉터들을 어루만지는 방법들의 문제였다.

20년 쌓여온 지금의 문제는 이것들이 다 역이고 섞이고 묶여 있다. 왜 공동체가 대안일 수밖에 없는가. 그냥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고통하게 죽기 때문이다. 불행히 비참히 죽는 우리들의 애환, 그리하여 살아도 죽는 좀비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처지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사람들이 '혼밥' '혼술' '혼자여행'과 '솔로놀이'를 받아들이고 독창적인 DIY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사가족과 유사 공동체를 꿈꾸고 동호회와 동아리에 마음을 둔다. '나 혼자 산다'를 넘어서 '나는 결심한다, 함께 산다'를 실험하거나 결행하기도 한다. 마을과 고을, 원래 태어난 고향과 새로 마음을 둘 고장들로 내려가는 일도 많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삶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런 주민공동체,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곳에서는 마을은 학교이고, 온 동네주민이 아이를 함께 기르길 소망한다. 동네는 용기를 얻거나 치유가 있는 곳이고, 골목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과 희망의 보람을 들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동네로 자리를 옮겨 편안을 찾지 않더라도, 도심 아스팔트를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서로의 사이에 대한 관심이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뽕 뽕하고, 이웃에 대한 기대는 봄을 알리는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 왜 문화인가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웃이 있고 사이좋은 삶이다. 그것은 좋을 삶이다. 심리적인 사회안전망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삶, 그리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이 올 가능성이 높은 삶이다. 더불어 웃을 수 있는 것이 이웃이다. 각자 살던 사람들이 서로 이어지려고 애쓰고 그 마음이 전해지는 사이다. 정서적 안정은 이웃과의 사이가 늘어나는 풍요로운 감정에서 온다.

함께 사는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정서적 만족 외에도 선물과도 같은 정신적 가치를 얻기 쉽다. 일부러 정신적 구도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인정을 나누고, 또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매너, 동네주민이 지켜야 할 에티켓을 익히고 지키게 된다. 사람 된 도리를 스스로 알아가는 것, 몸소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공동체가 있는 삶은 정신적인 가치를 늘 옆에 두게 된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으로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문화인가. 문화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사람들의 변화를 만들기 쉽다. 사람들이 교감하고 공감하는 교류의 행동과 연대의 인식을 일상 속에서 작게라도 가져나가다 보면, 사람들은 성장하고, 사람들간에서 서로를

---

학습시킨다. 사람들은 쉽게, 또 편하게 문화를 익히고, 문화를 배우고, 문화를 통해 깨닫고 얻는다.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가운데 깨우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함께 겪으면서 함께 만들기도 한다.

문화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하는 촉매가 되거나, 문화 그 자체를 즐기고 누리기 위해 모여 모두가 성취를 얻도록 도모하는 용매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은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익히고 자유롭게 문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정신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다. 문화의 힘은 크다.

### 문화를 넘어 '문화적인' 것

이런 삶은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보고 구하려고 하는 성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교양을 갖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소통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공동체일수록 성숙한 공동체라고 부르고, 이는 문화공동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공동체라고 부를 만하다.

함께 살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이도 포용할 수 있으며, 정의롭지 않는 상태를 바르게 돌리려고 개개인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적 가치다. 수준이 높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울린다 보면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할지, 공존의 가치를 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성숙한 연결과 풍부한 성장을 하게 되니, 개인이 사회적인 가치를 가질수록, 공동체는 건강한 소통과 개

인의 교양을 추구하는 문화적인 상태에 가까워진다.

문화적인 상태는 지역이나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먼저 다양화의 인정이고, 다음으로 차이의 인정이다. 그러면 공존의 감각이 오고, 관용의 자세가 나오기 시작한다. 개개인 삶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러하다. 공동체 안에 어울린다 해도 개성이 살고, 개인주의가 성장하면서 공동체 안의 정체성을 갖고 이기주의를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가. 개성이 존중되고 차이성이 공존할 수 있어 포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는 다양성의 교육이 필요하다. 주변부와 중심부를 구분해서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없다. 소외된 변방이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도록 애써 노력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하며 다른 성향을 공식적으로 수용해야 진정한 다문화사회다. 무엇보다 비주류가 다양성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반주류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오히려 주류가 관용을 학습해야 한다.

공존과 포용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 모습을 복합문화나 다문화, 문화다양성, 다원주의 문화라고 할 것인가. '문화적'인 것 그 자체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주민공동체, 마을과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다.

###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는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문화적인 것, 즉 사람들이 소통하는 관계와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은 단절을 연결하고, 분산 대신 협동을 늘리고, 배타성보다 확장을 지향하고, 멈춤에서 키움으로 진화하게 만든다.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누리로 관심을 키운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생활문화다. 생활문화가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에서 시작하고, 시민사회는 주민주도에서 출발한다. 생활문화는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 민도를 높이면서 이에 대한 바탕을 마련한다. 생활문화는 나에게서 우리로, 당신네를 넘어 더 큰 우리들을 만드는 데 기능한다. 우리에서 누리로 바라보는 것을 넓힌다. 마음을 맞추고 사람들과 세상의 문제를 교감하는 쪽으로 소통을 증진한다.

현재 공공영역의 지역재활력화 사업들은 주민자치와 생활정치에 바탕을 일으킬 것이다. 늘어나는 지역재생 사업들은 주민활로를 개척하고 일감을 창출하는 생활경제의 물결을 만들 것이다. 한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들은 생활문화의 영향력을 키워주고 있다. 특히 생활문화는 함께 알고, 함께 꿈꾸고, 함께 일하고, 나아가 함께 살기를 촉진해준다. 그래서 생활경제와 생활정치의 밑바탕을 제공한다.

### 주민공동체

지역 공동체는 효용이 크다. 심리적 측면에서 정서적 안정감에서 책임감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생활재와 공공재의 나눔에서 공동생산까지,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참여를 통한 학습에서 주체적 문제해결 역량 형성까지, 기대가 다양하다. 문화적 측면이 있다면, 공동체는 자부심, 결속감을 주고, 성장과 소통을 통해 얻는 충족감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기능을 들 수 있다.

공동체는 소통적 측면에서 신뢰에 기반을 둔 연결망에서 상호부조의 공동체 형성까지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 공동의 문제해결까지 하는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공동체의 문화적 측면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문화의 힘 말이다.

### 문화공동체

문화가 개인의 삶, 공동체, 마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효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명하다.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화공동체다. 문화공동체는 문화를 키우는 일을 해야 한다. '문화적인 것'은 두 가지로 소통하는 일과 성장을 돕는 일이다. 이에 의식적인 주안점을 두어야 문화공동체가 된다. 조상들이 각출과 추렴, 품앗이, 계, 두레, 제, 향약, 줌도리와 강구리, 수눌음 같은 상생교환의 방법을 써온 이유는, 이때 형성되는 주민들 사이의 문화적 풍토로 인해

서로 소통하며 성장한다는 기대로, 결속감과 자부심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 생활공동체

일상생활과 잘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려면 첫째, 골목을 재조명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 보이면 만나기-마주보기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모이기-모둠하기를, 나아가 무리짓기-무리치기를, 그리고 묶기-말기를 이어가야 한다.

둘째로, 동네가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살림을 생각하고 결행해야 한다. 이것은 주민자치의 시대정신에 맞아떨어진다. 생활문화, 일상적 소통, 공동체를 지향하는 작고 느슨하면서도, 부담 없는 연대가 이 과정에서 이뤄진다. 사회적으로 황행하는, 강하면 서도 얇은 연대가 아니라, 느슨하고 약하지만 깊은 연대가 필요하다.

셋째로, 마을살이를 그려야 한다. 즉 구성원으로서 멀리 보고 함께 살아가는 일을 그려 보아야 한다. 태어나고, 살아남고, 물려주고, 하는 식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지방소멸, 대도시탈출, 도심공동화, 원도심재생, 낙후 지역의 재활력화, 유휴장소의 재조명 등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이러한 마을살이는 농촌, 도시, 그리고 소도시와 대도시를 막론하고 늘어난 가고 있다.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결합하기를 꿈꾸며 시도하는 사례들이 부상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문화를 나누는 공동체 지향의 활동이 오랫동안 함께 가는 마을살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공동체는 생활 속에서 문화를 나누는 노력을 하는 주민 공동체다. 취미예술을 교육받고 체득한 후 실습하고 습작하고 공동창작을 하는 예술동호회만이 아니라도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로간에 결속하려고 고민하면서 문화를 통해 유대와 연대, 현대의 수단을 뚫으려고 애쓰는 주민동아리가 포함된다. 주민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작게라도 서로 만나서 함께 모여 문화를 즐기고 누리는 풍토와 관습, 약속 등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중에서 주민공동체다.

정확히 말하면 문화공동체라기보다는 작게라도 공동체문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연대활동, 혹은 동아리와 동호회를 포함해서 소통적인 공동작업이라는 게 맞다. 무엇보다 일상 속의 창조와 수용을 한다는 점에서 문화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를 매개로 하여 소통과 성장을 지향하는 점에서 보면 차라리 문화적 공동체가 맞다.

생활문화공동체가 주는 영향은 분명하다. 개인의 성장과 상호간의 소통에서 얻는 것은 상생을 지향하는 협

---

동이 편익이 있다는 감각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혜가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과 질서를 짜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면서, 서로간에 성장을 지지하는 관계와 연속되는 생활 속의 소통 과정을 누리는 것이다. 소통과 성장을 통해 문화인이 된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연결을 통해, 그리고 연결만이 아니라 마을을 생각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양성과 공존을 허용하는 탄력성과 관용 있는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시민력이라 부를 수 있는데, 반드시 사회성을 길러주는 문화적 소통과 성장이 있는 생활을 누릴 때 체감적으로 가능해진다. 즉, 문화가 있는 일상을 통해 의미있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 속의 공동작업을 통해 연대가 있는 문화를 누리면서 민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정치도 생활경제도 생활문화가 없이는 모래 위에서 쓰러지는 바위성과 같다.

#### **공동체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생활 공동체**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방향은 지속적인 사업과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예술, 취미동아리,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아트 등 활용하여 생활 속의 문화활동 공동체 풍토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하려면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만들어내려는 추진을 먼저 해야 한다. 즉 지속적인 관계형성의 공동작업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인데, 문화를 바탕으로 교류하는 생활공동

체인 동시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슈와 목적의식으로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행동들이 필요하다.

사실 생활문화공동체는 생활 속의 문화공동체라기보다는, 문화를 즐기는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깝다. 그리고 생활 속의 문화공동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공동체문화를 만들고 나누고자 시도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생활문화 공동체라기보다는 사실 공동체 생활문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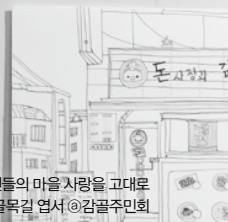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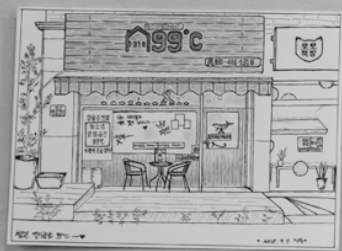
핵심은 일상 혹은 생활이다. 그래서 생활문화 공동체라기보다는 문화생활 공동체가 어감상 맞다.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생활공동체라기보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문화생활 풍토를 일구어나가는 것이다

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보다 공동체에 비중이 있다. 생활문화를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화생활을 누리는 공동체가 더 낫다. 그러니 문화를 나누는 생활공동체라는 것도 맞고, 문화를 즐기는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도 좋다. ☺





사람과 고양이 모두를 웃게 하는 가파른 언덕길의 고마운 썬터 @그림애문화마을



주민들의 마을 사랑을 그대로  
그려낸 골목길 엮서 @감골주민회

인형은 사람을 웃게 하고, 인형극은  
사람을 모은다 @ (주)극단아낌없이주는나무





원어울전방 최고의 메뉴는 특채 양념이 첨가된 라면.  
반드시 노을과 함께 즐겨볼 것 @원어울문화마을

마을협동조합 소란의 기반이 된 공동육아시설  
'신어린이집' @마을협동조합 소란





2009-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10년 사례집

